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10월 7일(월) 제675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상부의 지시에 의해 긴급 구속했다"

서울 총학생회장 연행, 혐의는 국가보안법

지난 2일(수) 서울캠퍼스에서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재단전입금확충과 협상의 책임자 배석을 요구하며 법인사무실과 총장실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약 200여명의 학생들은 청량리 경찰서에 총학생회장 불법연행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승주 기자

민주납부투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성동군(상경·경영 4)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목) 긴급구속됐다.

지난 1일(화) 아침선전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잠복해 있던 사복 경찰에 의해 청량리 경찰서로 연행된 박군은 현재 노원경찰서에 수감중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아침에 신발사러 간다고 추석때도 못들어간 집에 들어갔었다"며 "총학생회장 어머니께서 총학생회로 울면서 전화해 연행사실을 알았다."며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측이 자세한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아 혐의는 불분명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8·15범민족대회 학생동원, 범청학련 총회 참석, 주거침입죄' 등이 연행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는 연행 이튿날인 지난 2일(수)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장 강제연행 규탄대회'를 열고 청량리경찰서 항의 방문을 시도했으나 경찰측이 학교앞과 경찰서 앞에 병력 2개중대를 동원, 저지해 무산됐다.

이에 5명의 대표단만이 청량리 경찰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날 대표단과 총학생회장의 면담은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이뤄지지 못했다.

박군의 구속과 관련해 대표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청량리 경찰서 정보2계장은 "경찰서 차원이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해 연행했고 불법연행이 아니다"며 "분위기가 옛날과 달리 2·30명씩 모이는 것 자체가 시위로 간주되고 이는 불법이다.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학생들의 항의방문을 저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일(금)에도 총학생회장 구속과 관련한 집회가 열려 기간의 경과보고와 학생들의 결의의 발언을 듣는 순서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나인우(동양·이란 4)군은 "우리의 의지는 구속될 수도 없으며 구속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학생들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의를 높였다.

한편, 총학생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금운동과 광고투쟁을 준비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윤정 기자

반의자 참교육을 부르며

▲고등학교 입학식이었다. 아직도 난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8명의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8명중 한 선생님이 발언을 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생님의 억울한 표정, 그리고 그 분들이 전교조와 관련됐었다는 것은 기억한다. 서류상으로는 '모의고사성적 하락' 등이 이유였지만 그 선생님들은 전교조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교장에게 밉보여 쫓겨난 것이었다.

▲곧바로 교장선생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본교의 목표는 첫째도 대학진학, 둘째도 대학진학, 셋째도 대학진학입니다"라는 반갑고도 살벌한 환영사였다. 그 환영사와 함께 나의 앞을한 고교시절은 막을 올리게 되었고 난 교장선생님이하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대학진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착한 학생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2학년이 되었을때 전교조에서 표면상으로는 손을 뗐지만 여전히 참교육을 추구하고 실험하려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다른 선생님들과 많이 달랐다. 반장과 공부 잘하는 몇몇 아이들의 이름밖에 모르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기어이 수업에 동참시키고야 마는 분이었다. 또한 그분이 담임을 맡은 반은 생기가 돌았다. '교지'같은 걸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단체로 등산을 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한겨레 신문에서 그분의 이름을 보고 무척 반가웠다.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서명자 명단에 그분의 이름이 있었다. 아직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이 9000여명에 이르고 아직도 서명운동은 진행형이라 훨씬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 흐뭇했다. 드디어 전교조가 투쟁의 장에 나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당연한 교사들의 노조결성의 자유마저 없는 나라이지만 모두가 나선다면 바꿀 수 있을 것이기에 교사들의 움직임과 전교조 합법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우리의 후배들이 인성말살 교육이 아닌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리고 멀리 고향에서 열심히 참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 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고병권

'세민전 보러 갑시다'

1만 3천이 어우러지는 장으로

지난 1일(화)부터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이라는 내용을 내걸고 시작됐던 용인캠퍼스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오늘(7일)로 일주일째를 맞고 있다. 첫날부터 시작된 '세계민속영화축제'는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화제 등 총 30여편의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신경쇠약직전의 여자' '달콤한 인생' 등의 고전작품 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등 최근작품에 이르기까지 끝고루 선정된 영화를 상영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5일(토)·6일(일)에는 대학로와 방송통신대학에서 '제 2회 세계종물·음식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각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틀동안의 종물·음식전을 통해 각 과들은 자기 나라만의 의복, 악기, 지도, 책, 화폐 등의 종물과 이태리어과의 '해물스파게티', 러시아어과의 '팬 케이크' 등 교수나 외국인으로부터 배웠던 요리솜씨를 시민들을 상대로 뽐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어문계열을 소외시키지 않고 얼마나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목표를 짚어지고 출발했던 올해 행사가 그 해결고리를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열리는 경상대의 '연방제와 다단계통일방안에 대한 논의' 등의 학술제 또한 세민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이다.

세민전의 최대행사는 역시 12일(토)·13일(일) 대학로의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본행사다. 이 행사는 세민전 기간 중 선보였던 모든 양식의 공연, 전시 등을 총망라한 행사로 진행되며 서울캠퍼스 학생들도 학생증만 제시하면 입장권과 교환해줘 양캠퍼스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범외대인의 축제로펼쳐질 전망이다.

김태형 기자

민주납부… 분할납부로

10월 대중투쟁 준비

민주납부자들에 대한 대학당국의 제적경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캠퍼스는 지난 4일(금) 사회과학관 308호에서 제5차 민납자 모임을 갖고 135명의 민납자가 학교에 일괄적으로 분할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일(화)열린 민납자 모임에서 일괄납부나, 제적위협을 감수하는나로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절충안으로 분할납부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민납자인 심호철(동양·아랍 4)군은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학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생회측의 문제도 있겠으나 일반학생들의 무관심이 문제다"고 말했다.

학교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중인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하와 재단전입금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본적 합의사항에는 합의했으나 학칙상 논의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외형상 보기 좋지 않고 이것을 규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학자투쟁을 계속해 나아가는 가운데 4일(금) 열린 규탄집회에서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윤상호(신방 4)군은 "총학생회장이 구속된 상황지만 결코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대중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지면안내

학부신입생 전공선택시기 임박 …… 3면
현재 학칙대로 110% 상한선을 유지하면 피해자가 생기는건 불보듯 뻔한데…

영광은 지금 전쟁중…… 9면
영광 56호기 건설반대투쟁 현장을 찾아

영화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7면
위헌결정은 내려졌지만 이직도 칠칠산중, 또 넘어야 할 산, 국가보안법

선생님들도 노동자다…… 8면
선생님들이 교사선언을 통해 참교육을 외치고 있다

대학교육의 희망찾기 ④대중평의 문제점……10면
대중평은 교육 식민지화의 지름길

정기국회에 바란다

"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시계? "

'속이 비치는 옷은 단속하겠다' '심야 청소년 통행금지조치'…
70년대 어느 신문기사를 보는 듯 합니다.
"한국은 지금 몇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듯 물어옵니다.
지난 4·11총선이후 한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놓은 '민주화'의 성과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신시대나 있음직한 하원침탈과 불법연행이 횡행하고,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설, 안기부 수사권부활, 팀스피리트 재개…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들이 사회를 숨막히게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숨통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올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각별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많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안기부법개악 움직임 저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있는 검·경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제도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합리적 입법,
노동악법개정과 노동법개악저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간의 살바싸움이나, '안보'에 눌려 바른소리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경제난, 공안정국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라는 상식을 회복하는일은 국회의 몫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 설

일본 사회의 극우화를 개탄한다

일본 정부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고 한다. 자민당의 참의원 간사장은 "센가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간부들도 독도와 북방 4개섬도 그런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조하였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소식이 어디 처음이리오만 착잡한 기분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이 패망하였을 때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반성한다"는 사실을 내외에 공포하였는데, 50년밖에 지나지 않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를 미화하려고 하니 일본사회의 극우화는 지나친 것이 아닐까.

1980년대 이래 일본은 급속히 보수화하는 경향을 띠었고, 더 나아가 극우화하는 형태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경제적인 대국이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현재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일 구성원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을 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항의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확대되었다. 일본 총리의 야쓰구니 신사참배를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하거나 수탈하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다" 등의 망언이 계속 터져 나왔다. 이것은 자민당의 주요 간부들이 행한 말이므로, 일본 정부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보수 우익의 정치인이 주도해갔고, 거기에 학자 및 지식인들이 동조하여 그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일본 국민들도 점차 따라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조선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측면보다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함으로써 조선사회를 근대화시켜갔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일본이 조선인을 괴롭힌 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의 일본인은 "식민지 시기와 특히 해방 이후에 일본에게 혜택을 받았으면서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한국인을 나무라기도 한다. 이것은 왜곡된 인식이다. 일본은 조선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이룬 것이지, 조선인을 위해서 산업화를 이룬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은 이러한 극우적인 분위기속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에는 역사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논거는 1905년의 을사조약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강요하여 조선을 반식민지화한 조약이었다. 이미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해방되어 그 조약이 무효화된 마당에 그런 조약을 근거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래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영토로 부속하여 통치하여 왔다. 8.15 이후에는 한국이 수비대와 등대까지 두고 지배해온 영토이다. 그러한 역사적 근거를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도 망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언론들도 별로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일본 정부의 제 1당인 자민당의 이러한 음직임은 심각하게 고려할 일이다. 그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일본 내에서 공식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토를 침략하는 실현행위의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는 셈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극우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동아시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들과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길은 과거에 저지른 학살과 약탈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 국민들은 그런 범죄의 주역이었거나 그 계승자들인 극우보수세력을 정치권에서 심판하여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거를 참답게 반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益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총의는 선지자적 자세로 실천에 옮겨야

등록금투쟁이 막바지 고비에 이르렀다. 민주납부자 처리문제가 담면 현안이 됐고, 이 후 그 모습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사실 등투가 어느 일방을 비난하기 위해 시작된게 아닐진대 다함께 외대발전을 도모하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비롯됐기에, 특히 자율납부에 동조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 학교측에 대하여는 실망감을, 등투를 애써 외면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기에 여기에 몇 자 적어본다.

먼저 동료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진지한 것이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과 그것을 통한 사회진출이 대학생이 가져야 할 전부는 아니며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수호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적 소양의 연마, 배우지 못한 자, 정상의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배려도 대학생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대학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전과 비교해 우리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휴지와 담배꽁초들, 강의실 복도에서 고성을 일삼는 행위, 화분에의 진지한 접근과는 거리가 있는 시험과 학점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 수강자세…, 이런 모습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일상화된 우리의 지화상은 아닌가.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때 민주화를 외치며 통일의 순수한 열정을 간직하려 했을 때, 누구라도 우리의 생각에 감히 부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우리의 진지한 자세에 보탬이 되지 못할 이러한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은 자유와 정의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반지성과 반문명, 그리고 우리가 비판해온 기성세대의 안이함과 다르지 않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희생과 양보의 미덕없이는 공동체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발전이란 한계가 있다 지금은 빰보다는 빰을 만드는 데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이다.

대학주체 중 하나를 차지하는 학생는 대표기구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구성원의 조직화가 필요하고, 책임감 있는 간부의 발굴과 육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하부와 상부 조직간의 유대감 형성이 필수적이겠으나,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학생회 일꾼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의 성패를 떠나 지금까지 보여준 열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큰 바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각 과별로, 동아리별로 또는 그 밖의 소그룹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한 구성원간의 단결과 의지의 구축이 도모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바탕한 총의는 선지자적 자세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대학당국에게 말하고 싶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금까지의 학교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때문인지 겉으로 나타난 학교측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지금껏 되돌이되 온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의 바램은 학교가 행동과 판단에 앞서 교육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학생들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며 다 같이 대학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동주체라는 사실을 각인했으면 한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조를 두고 선언적 규정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놓고 보면 더더군다나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중에는 지켜야 되는 법과 안지켜도 되는 법이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학당국이 '얼린 총장실'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얼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과거 군사정권이 자행했던 국민순화식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학이 단순히 학력을 파는 상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진정 정의를 수호하고 불의에 몸을 사리지 않는, 조국의 비판적 중추세력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생지을 대표기구로서 학교에 대해서는 끊임 없는 비판과 학생에 대해서는 이익보호에, 더 나아가 학교 발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외대인이여!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외면하는 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를 마다 않는 자가 나오길 바랄 수는 없다. 이제 옳은 것은 옳다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삭히는 분노가 있다면 이제 일어서서 담담히 외쳐보자. 외대발전!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김천회(법·법학 2)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지난 1일 우리는 외대 곳곳에서 박성동 총학생회장님의 연행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재단(학교), 외대인들이 이에 큰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외대는 외대발전을 위한 민주납부와 학생참여의 제도적 보장 성사를 위한 투쟁을 한참 진개중이다. 학교측과 10차협상을 끝낸 지금까지 학생과 학교측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막연해 보이던 우리의 요구가 점차 그 정당성을 우리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고 또 현실화 되어 가는 듯 하다.

그러나 지난 1일 지금까지의 투쟁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의견과 요구안을 학교측에 내세웠던 박성동 총학생회장님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곧 구속되었다. 대부분의 외대인은 계시판의 대자보와 희망실천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아니 앞으로 남은 투쟁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싸움은 결코 민주납부를 한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총학생회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이고 학교, 외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얼마전 노천극장에서 박성동 총학생회장님이 학생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다.

'전화위복'

지금까지의 투쟁속에 많이 지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도중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한 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외대인이다. 어디서든 애국외대 깃발아래 모일 수 있는 우리들이다. 박성동 총학생회장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스스로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총학생회장님의 공백속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시람의 열걸음보다 열시람의 한걸음이란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이다.

함철우(동양·터어키어 1)

영어의 실용화

대학영어가 교양영어에서 실용영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몸부림이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회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회화를 배우는 것이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하다. 영어회화는 우리 국내인끼리는 여간해서 되지 않는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끼리도 쉽게 통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 영어로 하기는 쑥스럽다. 연습으로 해본다는 것은 부담이요. 노력이 기해질 뿐 배워지는 효과는 적다. 그러므로 영어학습이 용도를 잃어버리고 실용화 할 수 밖에 없다.

영어를 배우는데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시험에 A학점을 맞고 싶다는 것도 동기일 수 있다. 그러나 시험 잘보는 것과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액센트가 영어발음에 중요하다고 액센트가 있는 음절의 위치를 눈으로 읽히고도 그 발음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한다면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받겠지만 영어를 잘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영어를 실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 방법이요, 영어를 실용화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은 영어를 상용하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영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라디오 텔레비젼, 비디오, 영화 등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많고, Time, Newsweek 같은 주간지 등을 읽은 만한 것들이 많다. 영어방송을 들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영어를 실용화 하는 길이다. 들어서 습득한 지식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분야를 영어로 읽는 생활도 영어를 실용화하는 길이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네가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 그러나 듣고 읽을 수 있으면 영어를 배운 목적도 달성된 것이나 다름 없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은 영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들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고도 지식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고 쓴다는 것은 외웠던 것을 토해내거나 읽었던 것을 베껴내는 작업이 될 뿐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발성기관이 완전한 사람도 귀머거리가 되면 뒤 따라 벙어리가 된다.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차단되니까 말할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게 된다.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말을 할 때도 자기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 강의나 말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말은 소리와 의미로 되어 있는데 소리없이 글씨라는 기호만 보고 의미를 터득하고 영어를 배우기는 어렵다.

대학영어는 영미인에게 직접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영미인에게 회화나 작문을 가르치게 하면 가르치는 능력과 배우는 여건을 극히 제한하게 된다. 내용이 들어있는 전공이나 교양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 그 내용을 습득하려는 학생의 탐구적 방향에서 영어는 부산물로 습득되어진다. 그러나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한국인 선생의 지도를 받는 것도 효율적이다. 실용영어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공이나 교양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려는 데 있다. 실용영어의 교재는 시사성을 지닌 교재로써, 영어방송,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영어주간지나 월간지를 읽을 수 있게 도와 줄 만한 내용을 갖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녹음 테이프가 있어야 한다.

김 재 민
〈영어과 교수〉

독 자 만 평

또다른 배낭여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은 또다른 배낭여행 -
극동건설에서 시작하십시오.
세계속에서 건설한국의 이름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극동건설 -
끝없이 넓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더 크게 성장하십시오.

대졸 신입사원 모집

지도에 남는 役事로 역사에 남는 건설 -
극동건설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모집부문	1. 인문계 : 상경계, 법정계, 영문학 2. 자연계 :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산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안전공학, 조경공학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 '97년 2월 4년제 대졸 예정자 및 기졸업자 2.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시사위위 소지자는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자 4. 병역필 또는 면제자 5. 지역 · 연비 및 시사위위 소지자 우대 6.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인 · 적성검사 및 전공 · 영어 3차: 최종면접 및 신체검사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당사양식)1부 2.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및 TOEIC 성적표 (소지자에 한함)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1. 기간 : '96. 10. 9(수) ~ '96. 10. 18(금) 오전 09:00 ~ 오후 16: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2.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우: 100-705) 국동빌딩내 극동건설(주) 인사부 * 우편접수: 서울시 종암우체국 사서함 5613호 극동건설(주) 인사부 (우 : 100-652) (이외지역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

*문의처: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극동빌딩내 극동건설(주) 인사부
TEL: 273-1141(교) 212~215 FAX:275-0582

極東建設株式會社

서울캠퍼스 협상, 그 걸어온 길

"대중의 힘이 실려야 협상 승리한다"

표류하는 협상 … 외대발전의 돛 달아야

11번의 협상이 최근 5달여 동안 지속됐다. 학생들의 관심과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협상요. 벌써 11차까지 됐다구요" 상대앞 벤치에서 만난 한 학생은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되묻는다. 지난 5월 22일(수) 대자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시작된 대학당국과 학교측 대표간의 협상이 3일(목)로 11차를 맞았다.

민주납부와 함께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꾸준한 협상의 자리를 대학당국과 가져왔다. 이에 10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사운드라이브러리 교체 △사물함 증설 △흡관 교체 △여학생 휴게실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올해 투쟁의 목표였던 '부당한 등록금 인상저지'와 '학생참여의 보장'에 있어서는 대학당국의 '불가하다'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로 지리하게 진행됐다.

대학당국은 등록금 인하와 관련 6차 협상때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불가능하며 기존의 예결산 자문위원회를 강화해 학생들의 의견이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등록금 인하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참여의 방안으로 건의된 '외대발전 범 외대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덕룡 부총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위원회는 이미 꾸려졌으며 그린벨트 해제추진위원회와 중장기 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10차 협상때 말했으며 교육내용·재정 전반을 담보할 교학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달여동안 협상이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논의력과 결정력의 힘은 아주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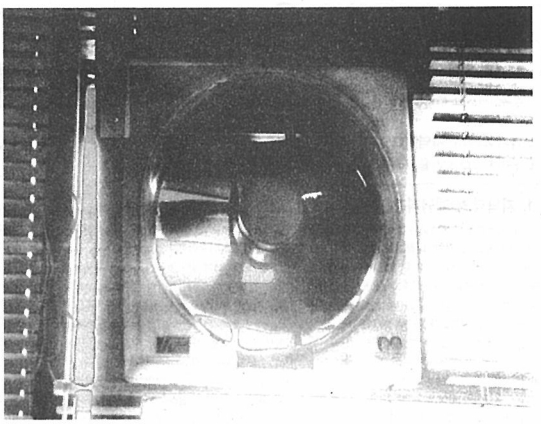
"그것은 재단 내부 사정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재무처장의 재단전입금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있는 당사자인 재단 관계자가 빠져있고, 외대발전을 논하는 중요한 시간에 양측의 대표로 참석한 협상단이 조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학생측 협상대표인 상경대 학생회장 김창수(무역 4)군은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협상에 7,300이란 대중의 힘이 실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협상의 모습엔 그런 부분이 적었다"며 "대중과 함께 고민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학생회 주체역량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일(목) 열린 11차 협상에서 재단 이양희 사무과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재단전입금 확충과 관련 '대원빌딩에 어학원을 설립해 수익의 80%를 재단전입금으로 운영하겠다'는 확답을 했다.

단순한 복지사안의 충원이 협상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교육시장개방과 경쟁적 정부의 교육정책속에서 표류하는 외대에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이 지금의 협상에 부여된 과제일 것이다.

김재경 기자



먼지뿜는 환풍기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과방, 동아리방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의 먼지가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난방기구 사용으로 환풍이 절실한 겨울이 오기전에 시급한 교체가 요구된다.

한승주 기자

졸업생은 출가외인(?)

주말·휴일 졸업생 도서관 출입 보장돼야

'대학의 전산화 구축' 그 첫 단계로 내딛었던 ID 카드. 발급 이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ID카드를 발급 받지못한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도서관 출입 제한이 대폭 강화되어 또 한번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졸업생의 도서관 이용 세칙을 살펴보면, △졸업 이후에는 6개월간 도서대출에 있어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하되, 관외 대출을 불가한다 △ 열람실은 이용할 수 없다 △6개월이 지나고도 불가피한 이용사유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과정을 거쳐 자료실 출입을 허가한다 등이다.

이 같은 세칙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학당국은 아무런 제재없이 졸업생의 도서관 이용을 묵인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ID카드로 재학생·졸업생 분별이 가능해지면서 졸업생들의 열람실 이용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전까지 별 탈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던 졸업생들이 갑자기 출입을 막는 직원들과 도서관 개찰구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서관 사서과장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해서 자료 대출실 이용을 허가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전체 학생수에 비해 부족한 좌석수를 감안해서 열람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독일어 교육과 91학번 동문은 "졸업하고 외대발전에 관한 일이라면 뛰든지 해주고 싶어 동문기금, 동문회 카드 등 여러곳에 신경을 썼는데, 나의 두번째 고향 모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며 "주말·휴일에 도서관 이용을 허가했으면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외대역사를 함께 일구어 왔던 외대인이 단지 졸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문화의 척도라고 일컫는 도서관 출입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다.

최근, 이화여대에서 주말에 한해 졸업생의 도서관을 허가하는 방침으로 개정한 일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명수 기자

학부 전공선택권 결정시기 임박

"단 한명의 피해자도 안된다"

대학당국, 최종적인 입장 정리해야

학부 신입생들의 전공선택 결정에 임박해서 '전공 선택권 완전보장'이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대학당국의 최종적인 입장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금) 재개된 협상에서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완전 보장'에 대한 요구는 교수들의 의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입장만 표명해 오고 있다.

이에 오는 7일(금) 서울·용인 합동 처장회의에서 그간 학생들의 요구가 공식안건으로 설정되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부제와 관련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회의 요구는 초기의 요구인 학부제 전면폐지가 아니라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공 선택권 완전보장'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나정환(동구어 체코 4)군은 "학교측이 제시하고 있는 110% 상한선에서 전공선택이 제한되면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폐과 위기에 몰리지 않는 한 모든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그동안의 학생회에서 실시한 자체조사와 최근에 교무과에서 실시한 희망전공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근거로 단언했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안이 관철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학부제 시행에 관한 학칙 개정이다.

이에 협상에 임하는 실무 담당자는 기존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행방침에서 및 차례에 걸친 협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읊은 문제 제기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110%상한선에 대한 학칙개정 부분이다. 대학당국은 무엇보다 학칙개정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든다. 이는 아직까지 성적으로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판가름 할 수 밖에 없다는 대학당국의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섭 교무과장은 "현재 학부 학생들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전공선택의 상한선을 보고 입학한 것이다"라고 신입생들에게 사전공고가 분명히 있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열성이다. 단적으로 현재 교무과앞에는 학생들이 요구가 담겨있는 서명서로 도배가 되어 있다.

학부 학생들이 '전공 선택권 자율보장'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명수 기자

존폐위기에 놓인 사범대

제 3차 교개안 통과 앞둔 사범대투쟁 본 궤도 진입

지난 8월 20일(화)에 발표된 3차 교육개혁안에 대해 사범대 학생회가 지난 단식 투쟁에 이어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3차 교육개혁안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원자치와 교원정책이다.

이 중에서 학생회측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교원정책이다. 개혁안에서는 지금의 교원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범대·교직이수과정·교원대·교육대학원 등의 양성체계를 교육대학원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 안이 10월 정기 국회를 통과한다면 모든 교원 양성기관은 평가인준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연차적으로 행정·재정적 규제를 받아 폐지되거나 타 목적의 대학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사범대 학생회는 '교육의 질을 무시한 채 교원의 수만을 줄이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학교 및 재단에 지난 4일(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 전임교수 확보 △교과과정개편 및 강화 △부속 외고 지매 결연 △ 교직 이수과정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앞으로 현재 3차 교육 개혁안을 반대하고 올바른 교육법 제정을 위한 학부모·학생·교원 청원 서명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96 동계 대학(원)생 국외연수생 선발

1. 대 상
   - 대학 및 대학원생
   - ※ 해외여행 결격자 및 신체하자자는 제외
2. 모집인원 : 137명
3.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한 : '96. 10. 18(금)까지
   - 접수처 : 서울·용인캠퍼스 학생처
4. 연수단 구성 : 1개단 25명 내외로 편성(각 대학 혼합편성)
5. 연수지역 및 기간

지역	연수단명	모집인원	연 수 일 정	기 간	비 고
대양주	1	23명	'96.12.16(월)~12.29(일)	13박14일	브리즈베인, 골드코스트, 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구 주	2 (A코스)	26명	'96.12.16(월)~12.29(일)	13박14일	런던, 파리, 로마, 나폴리, 베네나
	3 (A코스)	26명	'96. 1. 6(월)~ 1.19(일)	13박14일	
	4 (B코스)	26명	'96.12.16(월)~12.29(일)	13박14일	런던, 파리, 로마, 나폴리, 베를린, 루셀크루르트
	5 (B코스)	26명	'97. 1.13(월)~ 1.26(일)	13박14일	

   ※ 연수일정은 연수국 또는 항공기 사정등으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6. 경비부담 및 납부
   - 본인부담추정액 : 입찰금액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단위 천원)

구분	대양주	구 주	비 고
대학(원)생	1,800	2,000	보험료, 여권, 비자발급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단, 국고지원금 20만원은 별도)

   ※ 연수경비는 공개 경쟁입찰후 확정액 추후 통보
   ※ 테마학습입에는 중·석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USD50을 개인별로 지급함.
   - 국고지원금(1인당) : 20만원
   - 송금 기한 : '96. 10. 31(목)
   - 송금 방법 : 대학에서 일괄 송금
7.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본 국외연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학생처로 하기 바람. (TEL: 서울캠퍼스 961-4034~5, 용인캠퍼스 0335-30-4034~5)

1996년 10월 일

학 생 처

199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 및 본 대학교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9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1. 신청대상 : '96학년도 9월 현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제4학기 재학생으로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2. 신청기간 : '96. 10. 14(월) - 10. 25(금)
3. 접 수 처 :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
4. 제출서류 :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통.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는 명단이 교육부에 통제되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니 '97. 3월 개강초 지정기간에 철저한 확인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1996. 10. 7.

사 범 대 학

'9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기간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96학년도 전기('97. 2. 27) 졸업예정자
2. 제출기간 : '96. 10. 14(월) - 10. 25(금)
3. 접 수 처 :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
4. 제출서류 :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통.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리 할지라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성적미달자(전공, 부전공 각각 3.0미만)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 자격증은 학위수여식 후 사범대학 교학과에서 교부합니다.

1996. 10. 7.

사 범 대 학

오늘의 지도자와 지성인, 내일의 지도자에게 권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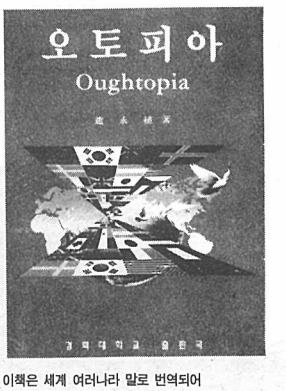
Oughtopia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인류사회는…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간답게 바로 살 수 있다

부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이다
편견은 虛像을 낳고 實相을 놓친다
이것이
오늘 철학부재의 사회를 만들었다

생각하라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천하를 바로 세운다
有機的 統一體觀에 선 오토피아는
동서고금의 사상과 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全東和 哲學을 내놓았다

오늘 물질문명의 한계점에서
인간이 종말적인 위기를 맞아
자아를 상실하고 있는 이때
오늘의 현실을 고민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예비하려는
오늘의 지도자와 지성인 그리고
내일의 지도자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Oughtopia'



이책은 세계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어
대학교재로 채택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공동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활발히 연구중에 있다.

조영식 저/신국판/269면/값 8,000원

경희대학교출판국 | TEL : 961-0107 FAX : 962-8840

글 싣는 순서

1.외대인의 인식
2.국내 지역학의 수준
3.본교지역학의 제도적 문제
4.타대학 탐방
5.학과에서의 지역학
6.대안-지역학 발전을 위한 좌담회

외대 지역학의 발전과 학과의 역할

지역학 발전은 지역학의 학과 정착으로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본교 지역학 발전의 열쇠

1. 지역학의 개념과 필요성

지금 지구촌에는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 나라의 외교 및 통상의 무대가 자국에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전되는 것이 세계화이며 세계화가 의미하는 국가간의 치열한 외교 및 경제전쟁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지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양극화의 현상은 각국이 추구하는 바가 외교 및 통상에 있어서의 실리추구라는 엄연한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및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이러한 정보의 축적이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잉태되었으며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다라 그 중요성 역시 점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학이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지역학이란 각국 및 각 지역의 언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사의 모든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학문이며 또한 철저히 실천적인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고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이 강조되는 전통학문과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하며, 아직은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학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학문적 위상이 정립되지 못했다고 해서 지역학의 필요성이 경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역학이 학문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지역학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학의 연구는 각국 또는 각 지역의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4개 외국어 학과에서는 세계 전지역의 언어가 체계적으로 강의되고 있다.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차 사회에 진출했을 때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얻고자 하는바는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외교 및 경제적 실리추구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국제간의 협조와 이해증진을 통해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도 언어 이외의 지역학적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훨씬 우월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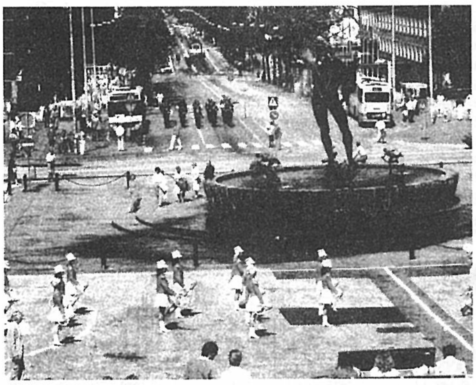
결국 지역학의 필요성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학의 대한 논의는 지역학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지역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 학부에서의 지역학

본교에는 24개의 외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학과에서는 해당 언어를 심도있게 강의함은 물론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소위 지역학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은 일찍이 일반 대학원에 지역학과를 개설하는 한편 세계경영대학원에 지역학 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지역학을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에서의 지역학연구가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위한 인프라이며 학부에서의 지역학연구 활성화여부가 우리 대학 전체의 지역학 발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부 특히 각 학과에서의 지역학연구의 중요성은 스스로 입증된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본교의 24개 외국어 학과에는 학부과정에 총 263개의 지역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바, 각 학과마다 개설 과목의 수에 있어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개설과목의 숫자가 각 학과의 지역학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학과마다 지역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서로 상이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통일된 지역학 프로그램이 결여된 결과라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의 본격적인 도입이 최근의 일이고 아직 지역학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지역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학은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인 학문이며,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 사정에 정통하며 사회과학적 사고체계를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강의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지역학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양어 또는 동·서양학대 학과 사회과학계열 대학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동·서양어(학)대학의 지역학 담당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충분한 인력의 확보에는 많은 세월과 재원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사회과학계열 교수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학이 우리 대학의 주요 발전과제의 하나이며, 따라서 지역학이 특정 단과대학의 전유물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본교는 24개에 외국어 학과가 있어 지역학을 연구하는데 다른학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3. 지역학 발전을 위한 학과의 역할

현재 각 학과의 학부차원에서의 지역학 연구는 단순강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포괄적이고 시급함을 고려할 때, 학과 차원에서의 지역학 강의도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과 차원에서의 지역학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과 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선 학교 당국은 지역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학제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학의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한편 교수진은 우리 대학의 발전과제인 지역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어학 및 문학의 부수과목으로만 다루어진 지역학에 대한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일 것이다. 학생은 교육의 수요자이며 이제까지 수동적 수요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수요자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재삼 인식해야 한다. 한 학기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대학생으로서 해내야 하는 최소한의 과정일 뿐이다. 이제 교육개혁에 의해 전공학점이 하향조정되고 복수전공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지역학을 정규 커리큘럼에 의해 연구할 수 있는 요건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지역학을 능동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지역학은 어문학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구. 발전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튼튼한 어학능력의 축적은 지역학 발전의 토대가 되며, 또한 지역학의 연구는 어학능력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어학교육의 강화이다. 대학 4년간 외국어를 배우고도 외국인을 대할 때 "과묵한"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상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수 그리고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대체적으로 보아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실용어학을 집중적으로 연마할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는 어학, 문학, 지역학의 강의를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해햐 할 것이다.

한편 지역학의 강의는 적어도 해당언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여 1,2학년 과정에서 습득한 언어를 바탕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서를 원어로 강의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져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만이 지역학과 어문학이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불행히도 지역학의 본격적인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전공학점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복수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의 사정에 정통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지역학의 강의 및 연구는 피할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학생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과별 지역학 교과목 개설현황〕〈표1〉

대학	학 과	학년별 분포 1	2	3	4	계
서양어·서양학대학	영어과	0	0	0	3	3
	불어과	0	0	4	2	6
	독일어과	0	0	3	2	5
	노어과	2	0	4	3	9
	서반아어과	0	2	3	4	9
	이태리어과	0	0	8	5	13
	포르투갈어과	2	0	5	4	11
	네델란드어과	0	0	6	2	8
	스칸디나비아어과	2	0	4	3	9
	폴란드어과	0	2	7	3	12
	루마니아어과	0	0	6	6	12
	체코어과	0	4	3	3	10
	항가리어과	0	2	3	3	8
	유고어과	2	2	4	3	11
	소 계	8	12	60	46	126
동양어·동양학대학	중국어과	2	2	5	3	12
	일본어과	0	2	3	3	8
	마·인어과	0	0	3	6	9
	아랍어과	0	2	13	6	21
	태국어과	2	0	9	10	21
	베트남어과	0	0	5	4	9
	인도어과	2	0	3	6	11
	터어키어과	2	0	7	7	16
	이란어과	0	2	4	6	12
	아프리카어과	1	2	8	7	18
	소 계	9	10	60	58	137
총 계		17	22	120	104	263

4. 지역학 발전을 위한 연구여건의 확보

이미 언급했듯이 학부에서의 지역학은 대학원에서의 지역학 연구를 위한 인프라로서 학부차원에서의 지역학의 활성화는 우리 대학 전체의 지역학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본교는 국내의 여타 대학이나 연구소에 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우리 대학에는 세계 전지역의 언어를 망라하는 24개 외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학과들의 교수진은 현지에서 수학한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대학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이미 활동을 개시하였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지역학 연구와 연구결과 확산에 있어서 국내 학계를 주도해 나감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 대학에는 이외에도 국내 유일의 통역대학원이 있으며, 또한 외국어 및 지역학의 연수를 위한 외국어연수원이 있다.

우리 대학은 또한 지역학을 학교발전의 원동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대학 선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최종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책대학으로의 선정이 확정되면 현재 일반대학원의 지역학과와 세계경영대학원의 일부 지역학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여 지역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은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 비해 절대우위의 입장에 서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 대학을 지역학의 메카로 성장시키느냐에 있다. 본교의 발전은 재단 또는 총장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교당국과 교수진 그리고 이 학교의 주인이며 존재 이유인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격히 저하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놓고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우리 대학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대학으로 선정됨을 계기로하여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교수, 학생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할 때 우리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될 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위상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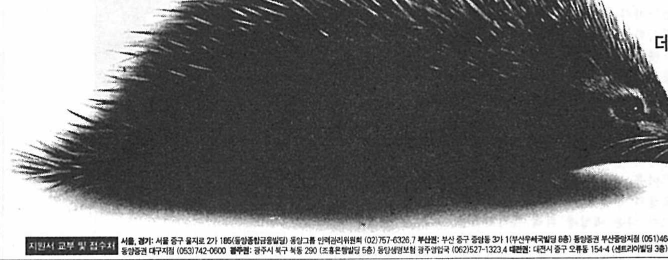
박 노 호
〈본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우와 강적이다. 강적 !!
어디서 저런 괴물이 나타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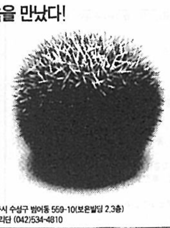
배낭여행은 대학 1학년 여름방학때 마스터했고
연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나?
군대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태어난 몸.
인터넷? 펜트하우스가 안방!
물론 백악관도 루브르박물관도 다녀왔단다.
술? 저게 사람이야 술통이야~~
영어회화? 웃는다! 일어까지 줄줄 핸다.

선배보다 더 튀는 놈!
선배보다 더 독한 놈!
우와~긴장된다! 큰일났다!!

대학시절, 안해본 게 없는 사람, 지금부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젊은이를 찾습니다.



더 지독한 놈을 만났다!



동양그룹 신입사원모집

1. 회사별 모집학과

계열 / 회사 / 학과	제조: 동양시멘트	제조: 동양매직	제조: 동양산업기계	제조: 동양토탈	금융: 동양증권	금융: 동양종합금융	금융: 동양생명보험	금융: 동양투자신탁	금융: 동양카드	금융: 동양할부금융	금융: 동양선물	금융: 동양파이낸스	무역 유통 건설: 동양글로벌	무역 유통 건설: 동양해운	무역 유통 건설: 동양시멘트/건설	정보 통신: 동양SHL	정보 통신: 오리온카룬네트워크	연구개발: 동양중앙연구소	연구개발: 동양중앙연수원
전학과					0		0				0		0			0			
상경	0	0	0	0		0		0	0	0		0			0			0	
법정	0	0		0		0		0	0	0				0	0				
인문사회			0	0					0						0				
교육																			0
디자인		0															0		
기계	0	0	0	0											0				
전기	0	0	0	0											0				
전자		0													0			0	
건축	0														0			0	
토목	0														0			0	
산공		0																0	
화공	0	0	0															0	
무기재료	0																	0	
환경	0	0													0				
도시															0				
전산		0							0										
수학									0										
통계									0										
일산가공				0															

●시 멘 트 : 기계는 기계공, 기계설계학과, 자격증 소지자(대기, 화약류, 응용지질, 품질관리기사)우대
●매 직 : 디자인은 제품디자인, 전산은 CAD
●산업기계 : 인문사회는 러시아어학과, 기계는 기계공, 기계설계학과
●증 권 : 위탁영업직 - 전학과, 본사영업직 - 상경
●해 운 : 법정은 법학과
●오리온카룬네트워크: 디자인은 시각, 산업디자인(컴퓨터 그래픽)
●선 물 : 전학과(외국어 능통자 우대)
●S H L : 전산관련학과 우대
●연 구 소 : 석사우대

2. 응모자격
가. '68. 1. 1. 이후 출생자(대학원 졸업자는 '66. 1. 1. 이후 출생자)
나. 모집부문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다.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1차, 2차) 다. 신체검사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당그룹 소정양식)
나. 추후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지참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자는 대학포함)
• 자격증 사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외국어 공인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6. 10. 14(월) ~ 10. 18(금) 09:00 ~ 17:00
나. 우편접수처: 100-192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다. Internet 접수: http://www.tongyang.co.kr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우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 또는 각사 인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위원회 ☎(02)757-6326,7(모집기간까지 가능)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서울, 경기: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동양종합금융빌딩)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02)757-6326,7 부산권: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부산우체국빌딩 8층)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051)464-8284 대구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559-10(보은빌딩 2,3층) 동양증권 대구지점 (053)742-0600 광주권: 광주시 북구 북동 290 (조흥은행빌딩 5층) 동양생명보험 광주영업국 (062)527-1323,4 대전권: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빌딩 3층) 동양생명보험 서부관리단 (042)534-4810

동양그룹 제조 식품 동양시멘트 동양제과 동양매직 오리온프리토레이 동양산업기계 동양토탈 금융 동양증권 동양종합금융 동양생명보험 동양투자신탁 동양카드 동양할부금융 동양창업투자 동양투자자문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스 무역 유통 건설 동양글로벌 동양해운 동양마트 동양시멘트/건설 정보 통신 동양SHL 오리온카룬네트워크 공익 서남재단

민교협 언론개혁 토론회

온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언론변화 유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는 지난달 24일(화)에 언론개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학생운동의 지위와 연대통일투쟁의 합헌성을 정리하고 연대통일투쟁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 언론의 왜곡된 모습과 편파적인 모습을 분석해 이후 한국 언론이 개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이 글은 토론회 때 유일상(건국대 신문방송학)교수가 '연세대 사태와 위기이데올로기'란 주제로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

올해 전대협 6년과 한총련 4년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 변화의 대응하여 그 스스로가 변모하기도 하였다.

즉 지난 10년간 학생운동은 과거 학생운동의 과제를 이어받고 민족통일을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로 제기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분단극복을 비롯한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 한총련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질서의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만큼 다른 결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이념 설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는 언론정보의 유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에게 언론의 자유 기능을 보완해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언론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연대통일투쟁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였다.

그럼에도 이번 연대통일투쟁을 보도, 해설, 논평하는 언론의 태도는 왜곡, 편파적이었고, 과거 군부독재 때보다 더욱 치밀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준비됐었다.

폭력적 진압만이 유일한 해결책

언론은 한총련이 주관하는 통일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대학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폭도들로 매도했고, 특히 소수의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든 모습만 집중적으로 화면에 담았다. 반면에 언론은 2만여명의 중무장한 전경과 페퍼포그, 헬기가 대다수의 학생들을 폭력진압, 연행하는 장면은 보도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각종 사회단체들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보도는 축소하거나 은폐해 공권력을 통한 폭력적 진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다. 직접보도에 기초해서 작성돼야하는 해설기사들은 한총련을 민족해방계열(NL)과 민중민주계열(PD)로 나누고, 또 민족해방계열은 자주적학생회와 사람사랑학생회로 나누는 등 공안당국이 자행하는 분할통치전술의 분석틀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또한 언론의 해설기사는 현시기 기조없는 통일정책과 정치불안, 경제적 난국 등의 책임을 대미예속적인 정권과 무능한 정치인, 그리고 불평등한 소유와 분배구조를 고수하려는 자본가에게서 찾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려고만 했다.

위기 이데올로기 조작, 확산

보수언론들의 논조는 한결같이 한총련의 이적성과 폭력성을 공격했고 정부에·대해서 강도높은 폭력탄압만을 주문함으로써 결국 연세대를 쑥밭으로 만드는 진압작전을 독려했다. 결국 언론은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전면적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억압된 의견의 일부는 비평화적 방법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해설해주지 않았다.

이런 보도내용을 통해 언론은 지배세력들이 희망하는 정치목표를 향해 일반 국민들을 동원해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라는 위기이데올로기를 조작, 확산시켰다. 메카시즘적인 위기이데올로기 조작과정의 첫 단계로 언론은 매년 치뤄오던 범민족대회를 폭력성과 이적성으로 포장하여 대중들에게 돌출시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다음 단계로 위기분위기를 조작, 확대시켜 각계각층인사들을 청와대로 모아 집단적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국민들을 공포감에 휩싸이게 해 사건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가상적인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 이 상태에서 지배세력은 일정한 희생양, 즉 한총련을 제물로 삼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게된다. 그러나 정권과 언론이 합작해낸 이번 위기이데올로기는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정부가 한총련의 이적성의 근거로 댄 한총련 통일노선의 경우 6공 정부가 지난 91년 북측과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적성판단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양 측 정부가 공식승인한 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화해,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성문제도 논리가 안맞기는 마찬가지다.

보수세력의 진지에서 벗어나야

이제 한국 언론은 변해야 한다. 한국 언론이 이번 연대통일투쟁 보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약자를 짓밟고 강자의 입지를 튼튼히 지켜주는 거대한 보수세력의 진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반공,반북이데올로기로 무장했던 중견언론인은 과거를 반성하고 과감히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둘째로 언론과 재벌,권력관계를 끊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소유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신진언론인들은 과거 정권의 앵무새였던 언론인들의 모습을 본받지말고 민중적, 민주적, 통일적 언론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국민의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다. 권력과 자본의 틈에서 보수성에 물든 한국 언론을 온국민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속에서 한국 언론은 진정한 진보와 개혁으로 나갈 수 있다.

사회부

댓거리여행

진정한 사랑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학회가 바로 용인캠퍼스 영어과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사람사랑' 학회이다.

'사람사랑' 은 영어과 소속의 학회로서 지난 86년에 결성, 용인캠퍼스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로서 현재 1학년 15명, 2학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회는 단순히 학과 공부를 위해 모인 여느 학회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들 삶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가까운, 사회적인 문제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학회는 책을 읽고 세미나식으로 1주일에 2번씩 모여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한달에 한번씩은 영상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들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요즘은 송두율 교수의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란 책을 다루고 있죠.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역사, 철학, 사회 등에 관련한 책들을 읽고 토론해 왔어요. 이번주는 통일에 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는 셈이죠"라며 학회장 강호석(영어 2)군은 "우리 학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학회원들의 노력이 큰 듯해요. 다른 사회과학쪽의 학회들이 가진 문제점이지만, 시대에 변화에 맞지 않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내기들은 조금은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 할 경우가 많죠. 그럴땐 저희들도 막막하죠. 서서히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학회의 가장 큰 특징을 "거창한건 아니에요. 20여년 동안 지금까지 알아오고 그리고 알아 가야 할 많은 것들을 앎과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알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와 총동문회를 계획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흔히 서로의 자주성을 높여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 이번 댓거리 여행을 통해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말이다.

염혜진 기자

□ 성남 청년대학

공동체 사회의 희망심기

성남 청년 단체연합(터사랑 청년회,분당 청년회,성남 청년회)주최로 제 1회 성남 청년 대학이 오는 19일(토)부터다음달 10일(일)까지 성남 시민회관 소강당,성남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대성리 유스호스텔에서 청년대학 캠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에는청소년 수련관에서 졸업식을 갖는다.

참가 할수 있는 인원은 50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대학을 준비한 성남 청년 단체 준비 위원회는"청년들의 문화적 잠재력과 학술적 지향 복구를 향상 시키고,아울러 21세기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깊이 있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 했다"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려는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 사회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좌문의는 (0342)722-2117

노래교실 [장소/중동사무소]			
1강좌	10월 20일(화)	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노래	우위영(가수)
2강좌	10월 24일(목)	오, 통일이여! 우리들의 사랑이여!	윤민석(작곡가)
특강	10월 26일(토)	(특강)우리것은 좋은 것이여!	박동진(인간문화재 5호)
5강좌	10월 31일(목)	단체로 공연관람	
역사교실 [장소/성도신협, 시간/월·수·목(7시30분)]			
2강좌	10월 27일(일)	역사를 한 눈에-인왕산, 경복궁답사	엄기환(전국 역사교과 모임)
3강좌	10월 30일(수)	청년의 가슴에 영그는 우리 역사 이야기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5강좌	11월 6일(수)	영상으로 보는 휴전선 155마일	이지누(사진편집위원)
영상교실 [장소/성도신협, 시간/화·목·토(7시30분)]			
5강좌	10월 31일(목)	촬영기법실기	(문원립 교수)
탈춤교실 [장소/경원대학교, 시간/수·금(7시30분)]			
3강좌	10월 27일(일)	오금질 겹사위, 양사위	김정용(분당민속학교 강사)
특강	11월 8일(금)	이것이 봉산탈춤이다.	김선봉(인간문화재)
풍물교실 [장소/하늘땅소리, 경원대, 시간/7시30분]			
1강좌	10월 22일(화)	기본타, 몸풀기, 인사굿, 삼채배우기	임수빈, 황정주, 김진형, 조승민
특강	10월 26일(토)	〈특강〉우리것은 좋은것이여!	박동진(인간문화재 5호)
4강좌	10월 31일(목)	삼분박 다듬기	김진형
등산교실 [장소/신흥1동 사무소, 시간/7시30분]			
1강좌	10월 22일(화)	산경표 이야기-겨레의 숨결을 간직한 백두대간이야기	박찬교(산악인)
사진교실 [장소/성도신협, 시간/수·금(7시30분)]			
6강좌	11월 8일(금)	작가와의 만남	이지누
문학교실 [시간/7시30분]			
2강좌	10월 25일(금)	태백산맥-조정래, 두만강-이기영에 대하여	
5강좌	11월 6일(수)	나의 삶과 문학-작가와의 대화	도종환(접시꽃당신)시인)

학술 단신

10회 법과대 학술제 열려 4개 학회참가

법과대 학생회에서는 법과대 내의 4개의 학회가 참가하는 제 10회 법과대 학술제를 이번달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오후 5시에 대학원 소강당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첫째날 열리는 국제법학회의 '한일협약의 재검토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중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한일 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방안을 국제법적으로 고찰한다. 둘째날은 '대량생산체제하에서의 소비자보호'란 주제하에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민사법학회에서 심포지움을 연다. 셋째날은 맑스철학연구회인 '광장'에서 '매매춘'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광장측은 "사회철학을 공부하는데 사회주의철학 뿐만아니라 여타 다른 철학분야의 섭렵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움을 연다"고 밝혔다. 넷째날은 공법학회에서 헌법모의재판을 연다. '영화진흥법의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의재판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전심의로 제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열린다. 공법학회측은 "사전심의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에 완전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인문대 애인제 개최

인문대 학생회에서는 이번달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애국인문대학 학술축제(애인제)를 인문경상관 건물 곳곳에서 개최한다.

인문대에 속해있는 각 과들과 동아리, 학회 등이 애인제 기간동안 별도의 행사를 준비했다.

사학과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식 만들기,이번에 다녀온 제주도 유물유적을 소개해주는 답사 사진전등을 연다.

문학 동아리인 새날은 '열린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인문대 통일 동아리는 통일 퀴즈대회를 개최해 인문대인의 통일에 대한 지식을 알아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인문대 단대장인 김영기(인문.언어4)군은 "이번 애인제는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연장선상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주체들만의 행사가 아닌 자기가 주인 되는 마음으로 참가할수 있는 애인제를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우린 해태에 왔다!

공채 21기
코래드 김지현

신입사원 모집안내

식품에서 전자,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신하는 21세기 해태로 오십시오.
도전과 패기의 세계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1. 모집부문 및 회사

응시직군	모집회사	모집학과 인문계	모집학과 이공계	응시자격
전자	해태전자(주)	상경, 법정, 인문계열	전자계산학	1.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및 1997년 2월 졸업예정자 2. 1969.1.1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해태음료, 해태상사, 코래드는 해외(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우대함.
전자	(주)인켈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전자, 산업공학, 전산	
전자	나우정밀(주)	상경계열	기계, 전자, 산업공학, 디자인	
유통	(주)해태유통	상경, 법정, 인문계열	기계, 전자, 통신, 전산, 디자인	
무역	해태상사(주)	상경, 법학, 영문, 스페인어학	기계, 금속재료, 전자계산학	
광고	(주)코래드	광고, 신문방송학, 미계열, 기타 상경계 및 인문계 전학과 (AE모집)		
식품	해태음료(주)	상경, 법학, 신문방송학, 인문계열	기계, 전자계산학, 식품공학	
식품	해태산업(주)	상경계열	기계, 전자계산학	
건설	해태건설	상경계열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전자계산학, 산업안전공학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및 인성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2부 (우편접수시는 필히 수험표 동봉)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다. 공인기관 TOEIC 성적증명서(제출가능자에 한함)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6.10.9(수) ~ 10.15(화) 09:00 ~ 17: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일요일 제외)
나. 지역별 원서교부처

지역	교부처	주소	전화번호
서울	해태그룹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 B/D	(02)716-8811
경남	해태 부산지사	부산시 북구 학장동 246-1	(051)314-6511
경북	해태 경북지사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221	(053)564-5760
전남	해태 전남지사	광주시 북구 일산동 408-2	(062)571-2316
전북	해태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38-3	(0652)211-3551
강원	해태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5	(0371)43-0445
충청	해태 충청지사	대전시 동구 가양동 424-1	(042)627-0207
제주	해태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0-3	(064)43-1611

다. 접수처 : 해태그룹 접수처 (마포구 다보빌딩) 문의전화 : (02)716-8811, 717-5765

5. 기타
가. 국가보훈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나. TOEIC 성적우수자 및 이공계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다. 우편접수시는 마감당일 소인분에 한합니다.

당사약도

해태그룹

공채 24기
해태전자 임상범

제2회 세계풍물·음식전

학생들이 마련한 시민들과의 소중한 시간

"원래 대학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보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

친구와 함께 대학로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풍물·음식점을 보게 됐다는 이은지(24)씨의 말이다.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과 그 앞 보도에서는 제 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행사 중 하나로 제 2회 세계풍물·음식전이 펼쳐지고 있다. 각 나라의 풍물·음식의 소개를 통해 언어적으로만 다가가기 쉬운 이학계열의 단점을 보완해서 좀더 쉽게 그 나라를 알아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풍물·음식거리를 구경하면서 설명해주는 학생의 얘기를 듣는 그 진지한 모습 속에서, 오후 4시가 넘은 시간까지 행사 진행하느라고 식사를 하지 못했으면서도 오는 시민들에게 하나같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들 모르는 사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맺어진 보이지 않는 애정의 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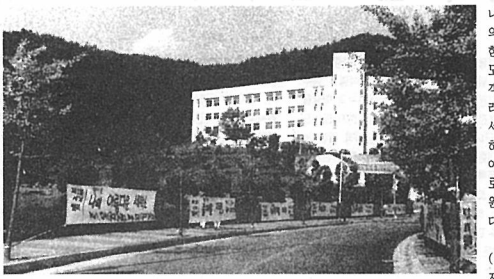
한편 아랍어과에서 준비한 '케밥'을 사달라며 조르는 아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 한 아저씨는 "학생들이 만든 음식을 몇 개 맛봐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었다. 집에서 얼마나 요리를 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리까지 만드는 걸 보고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웃음을 지었다. 특히 방송통신대 안에서 열린 '세계음식전'은 쿠폰판매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과마다 쿠폰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자주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순들이 상술과는 다른 정겨움을 느끼게 했다.

이틀간의 행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시민들 - 외국인들도 상당수였다 - 의 참여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가는 시민이 없고 대부분 궁금한 것을 주저없이 물어보고 각 나라의 인사말을 학생이 가르켜 주면 그대로 따라 할려고 안스럽게(?) 노력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96 제 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본 공연

고요·혼돈·화합을 향한 메아리



지난 1일(수)부터 시작된 '세계민속영화축제'는 학생들의 큰 관심속에 치뤄졌다

'96 제 3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의 본 공연이 오는 12(토)·13(일) 양일간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21세기 통일 한국의 비젼'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크게 3부로 나뉘고, 각 과의 공연 또한 세미담으로 구성된다.

제 1부에서는 해돋이 영상과 노래패의 아카펠라,음향효과 등으로 고요와 혼돈을 표현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데,일본어과의 스모가 이를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제 2부에서는 각 과에서 준비한 공연으로 서양학대,동구어대,동양학대,한국팀으로 나뉘어 화합이라는 소주제하에 진행된다. 각 단대에서 최대 4개과가 나와 민속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공연에 앞서 각 과별 전공언어로 인사를 한다. 제 3부에서는 제 1부의 주제,내용 및 본 공연에 앞서 마련하였던 심포지움,영화제,전시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상영하며 풍물패의 길놀이 등 한국팀의 공연을 정점으로 화합과 대동의 단계로 나아간다. 특히 희망의 대동마당에서는 한국팀 풍물패의 유도로 전 출연진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어서 5개 대륙을 상징하는 세민전 기수단이 퍼레이드를 함으로써 세민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본 공연에 앞서 9일(수) 오후 5시에는 자연과학대 대강당에서 세민전 전야제가 펼쳐진다. 전야제 또한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영화제 폐막식과 전시전,풍물전,학술전 등 세민전 기간에 열렸던 행사들을 평가·마무리 한다.

또한 가장 많은 영화를 상영한 과와 가장 많은 영화를 본 학생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제 2부에서는 각 과와 동아리 등 세민전을 준비한 학생들의 연습과정을 보여주는 자리로,제 3부에서는 세민전 준비위원회와 자원봉사단의 장기자랑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92,94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세민전. 50년이 넘게 갈라져 살면서 우리민족의 문화적 동질성마저 상실한 지금, 우리민족의 차이를 인식하고 통일을 앞당기려는 의식을 본모로 전공 학문에 대한 학문 연구의 계기 뿐 아니라 사람사람의 정신과 학생회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연화 기자

생활 시평

시대(?)의 명화

요즘 전국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한 영화가 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이런 영화는 없었다. 전국의 모든 극장에 일시 개봉하더니 '서편제'가 기록했던 '100만 관객동원'이란 기록을 개봉 2주만에 단숨에 돌파하고 새로운 기록경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의 모든 영화관계자들이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

"제목:한총련진단, 감독:김○○, 주연:한총련, 제작:국립영화제작소, 후원:국가안전기획부"

그러나 이 영화가 이번에는 표절시비 문제로 또다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명 군부독재시대에 성행했던 '대한뉴스'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이 화제의 영화를 관람한 나도 '표절의혹'을 깊이 간직하고 돌아왔다. 그도 그럴것이 성우, 화면구성, 정부측의 일방적 의견 개재 등에 있어서 예전의 '대한뉴스'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영화관계자들은 이 영화를 제작한 측에 대해 '도덕성'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어렇게 군부독재시대 최대의 히트작이었던 '대한뉴스'를 표절할 수 있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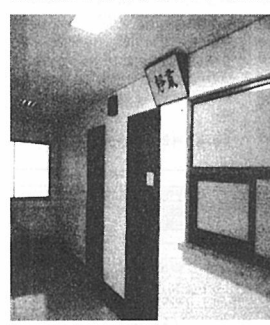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를 제작한 한 관계자는 "이 영화는 치밀한 정세분석을 통해 탄생된 영화다. 한참 보수회귀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옛 군부시대의 유물인 '대한뉴스'를 생각해 낸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아이디어였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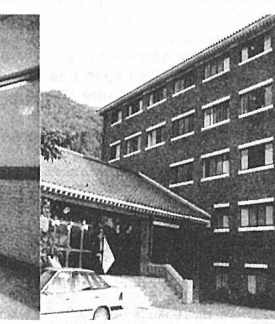
이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열리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 주연상, 그리고 올해 신설된 후원상까지 합쳐 6개부분의 수상이 유력시 되고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는 '한총련'에게 과연 어떤 상품이 돌아가냐는 것인데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진원 구속'이 특별상품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한참 진행중인 한총련 간부들의 잇다른 구속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후원상을 수상한 '안기부'에게는 '안기부법 개정'이라는 보너스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잠자리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학사회로써 진보적이면서 개방적이어야 한다.
사진은 용인캠퍼스 기숙사 '모헌학사'의 내·외부모습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분주하다"

학생참여 없는 사감선임은 위헌(?)

용인캠퍼스 기숙사 '모헌학사'의 밤 10시 30분.

잠을 자다가, 씻다가, 공부하다가도 이 시간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사생원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인원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사감의 훈계를 듣는다. 각자의 방앞에 일렬로 쭉 서서 - 일부러 정렬하는 것은 아니고 방에서 나오면 자연적으로 줄을 선 것처럼 보인다 - 인원점검과 지시사항을 듣는 것으로 이들의 하루 일과는 끝을 맺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숙사 일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문제의 발단은 한 달전에 바뀐 여학생기숙사(여사) 사감이 현역 육군 대위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위탁장교'(군인 신분의 사람이 다른 나라에 무관(외교관이라고 생각하면 됨)으로 활동하기 위해 군의 위탁을 받은 대학에 들어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로 본교 용인캠퍼스 플란드어과 2학년에 재학중인 사감의 점호방식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터트렸고 이 얘기가 총학생회에 전해지면서 사건이 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라면 먼저 거부감부터 갖는 대학생들의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사건이다.

이에 두고 여사생회장 최월양(서학·노어 3)양은 "사감이 군출신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외부에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같다. 사감을 '큰언니'라고 부르는 학생도 있을 만큼 예전의 사감보다 오히려 훨씬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사감으로서 제 역할을 발휘할 시간도 주지 않고 편협된 생각으로 처음부터 몰아부치는 것은 원천적인 '기회 박탈'이라고 생각된다"며 예정어린 시각으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자고 말한다. 또 여학생기숙사의 수위아저씨는 "부모님들이 기숙사를 믿고 학생들을 맡겼는데 담연히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약간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점호시간과 사감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승민(서학·영어 2)양은 "대학생이면 이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이 돼서까지 '점호'라는 형식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든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면 '점호' 같은 것도 없었을 거다"고 말해 기숙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 또 기숙사 앞에서 만난 이현자(서학·영어 2)양은 "점호하는 것이 싫다. 예전에는 사생회에서 각자의 방을 찾아가 입실여부를 확인하고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방에서 나오도록 해 학생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끝낸다. 10초도 안걸린다.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대학에서 기숙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된다. 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잠자리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학사회로써 진보적이면서 개방적인 측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감의 조건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기숙사가 진보적이면서 개방적인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감은 학생들과 친근하고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려 하는가, 또 얼마나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한채 단지 학교측 인사의 추천에 의해 사감이 임명되는 파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점호시간을 지킨다"는 한 학생의 말은 대학에 와서까지 어떤 규정된 틀 속에 얽매어 살아야 하는 대학인의 딱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김태형 기자

외대따라잡기

〈4〉상징색 - 녹색

본교의 상징색은 녹색이다. 스쿨버스 색깔이 왜 이렇게 촌스럽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야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하지만 녹색은 촌스러움보다 더 큰 뜻을 담고 있다. 그 중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울에도 늘 푸른 상록의 의미를 꼽을 수 있겠다. 매서운 겨울에 대부분의 식물들이 지연에 적응해 그들의 빛깔을 적갈색으로 물들일 때 홀로 외로이 남아 자신의 빛깔을 지켜내는 상록수. 지금 우리에게는 거치른 벌판에 상록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 당신이 돼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외로운 싸움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초록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대인이 됩시다.

문화부

시청각실 상영영화

엑조티카(EXOTICA)

감독:아톰 에고이안
날짜: 10월 8일(화)
시간: 1회 14:00
2회 17:00
장소:서울캠퍼스 대강당

스트립클럽 엑조티카에서는 누구나 5달라만 내면 마음에 드는 댄서를 자기 테이블로 부를 수 있다. 열대지방의 이국적이고 나른한 분위기와 댄서들의 현란한 춤을 즐기며 인생의 무게에서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밤이면 이곳에 모여든다. 이 영화에서 제목이나 내용 못지않게 엑조틱한 느낌을 주는 것은 클럽 엑조티카의 세트다. 이는 에고이안 감독의 그 어떤 영화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열대정글이 연상되는 분위기로 장식된 클럽 엑조티카는 인간이 가슴에 품고 있는 환타지아와 그로인해 위로 받는 개인의 아픔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냈다. 세트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한 것은 몽환적인 음악인데 마이클 다나는 보랏빛 세트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동남아시아 음악을 연구하는 한편 인도의 음악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특이하지 않은 외피 속에 단지 가능성으로 잠재한 엑조티즘.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소재가 아니고 무엇이랴. 감독은 바로 그 가능성을 인공부화시키려 한 것이다.

문 화 옹 달 샘

새 책

새로운 두 과학

갈리레오 갈릴레이/ 이무현 옮김/ 민음사/ 8,500

물체의 낙하법칙,진자의 동시성 등 많은 획기적인 물리이론들을 발견한 갈리레오 갈릴레이가 쓴 책으로 자신이 연구한 물체의 낙하법칙과 고체의 강도에 관한 이론을 담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살비아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주장하는 심플리치오,심판 역할을 하는 사그레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첫째날부터 넷째날 이야기로 나누어 서술한다.

첫째날에는 지구와 천체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둘째날에는 이 책의 핵심인 지구의 자전을, 셋째날에는 해의 흑점이 움직이는 길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구의 공전을, 마지막으로 넷째날에는 밀물과 썰물에 대해 다루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창시한 새로운 과학과 그의 얼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 7,300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 현재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는 중요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일반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하에 글을 서술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했을까?' '조선시대의 군대생활' '담뱃대의 길이는 신분에 비례한다' 등과 같이 흥미로운 내용뿐 아니라 그러한 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사회,경제,정치,문화의 네 부문에 걸쳐 쉽게 망라하였다. 신윤복 등 조선시대 화가들의 풍속도를 담아 조선시대 화가들의 생활상을 펼쳐보인 것이 흥미롭다.

반드시 바꿔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박숙희 지음/ 이오덕 추천/ 한울림/ 7,300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분단 51년 동안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비속어 위주의 일본어나, 한자어로는 그 뜻을 가늠하기 어려운 한자어, 원어 발음과는 동떨어지고 마구 줄여쓰는 일본식 외래어는 건강한 우리말과 생각을 해치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법전, 법률용어에서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쓰는 행정용어까지 우리말 속에 뿌리내려 좀처럼 뽑히지 않는 일본어를 찾아내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총 27개의 단어를 실었다.

일본말의 뿌리를 뽑아 우리 말 글말의 건강하게 일구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책이다.

이주의 영화

데니스는 통화중

감독: 살웬

영화가 가질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표현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화면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곤한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영화의 화면은 단지 몇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재담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 다소 어색할수도 있을 이영화를 재미있는 뉴욕 영화로 만든 감독은 신에 할 살웬 감독이다. 시종일관 통화장면으로 계속되는 이영화를 문명을 읽는 또다른 방법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값싸게 전하는 영화다.

이주의 비디오

한국단편영화걸작선

영화산업의 기초공사라 할수 있는 단편영화 5편을 담은 비디오다.

슬픈열대, 시인 구보씨의 하루, 먹이, 비명도시, 가변치선등이 바로 여기에 담은 작품들이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육상호, 유하, 김성수, 양윤호 감독들의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을 가름해 볼수 있는 비디오다.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7일)	콩나물비빔밥 (₩1,200)	두부된장찌개 (₩1,300)	닭개장 (₩1,400)
화(8일)	부대찌개 (₩1,400)	오무라이스 (₩1,300)	무우어묵국 (₩1,000)
수(9일)	짜장밥 (₩1,200)	돈까스 (₩1,500)	버섯덮밥 (₩1,400)
목(10일)	비빔밥 (₩1,200)	돈육볶음덮밥 (₩1,400)	카레라이스 (₩1,200)
금(11일)	해물잡탕밥 (₩1,400)	닭곰탕 (₩1,400)	김치볶음덮밥 (₩1,200)

* 위 식단은 물품수급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 식	중식 I	중식 II
월(7일)	참스테이크 (₩2,000)	설렁탕 (₩1,800)	야채참치덮밥 (₩1,300)
화(8일)	미트소스 스파게티 (₩2,000)	바베큐 치킨 (₩1,800)	사골우거지탕 (₩1,300)
수(9일)	비프커틀렛 (₩2,000)	닭곰탕 (₩1,800)	잡채밥 (₩1,300)
목(10일)	일식돈까스 (₩2,000)	회덮밥 (₩1,800)	콩비지찌개 (₩1,300)
금(11일)	함박스테이크 (₩2,000)	민어매운탕 (₩1,800)	떡만두국떼밥 (₩1,300)

〈제공: 생활협동조합·총무처 후생과〉

사 전심의 위헌판결

날 상한 가위, 그러나 자를 수는 있다

실질적 검열 공연법과 국보법으로 계속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영화계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본보는 그간의 사전심의에 대한 논란과 헌법재판의 진행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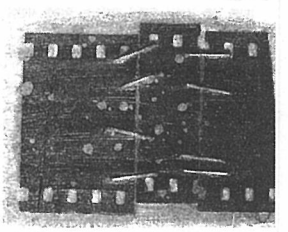
지난 10월 4일(목)부터 한국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공륜의 가위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93년 1월에 '닫힌 교문을 열고'를 제작한 강헌(독립영화집단 '장사꾼매' 대표)씨가 서울 형사 지방법에 구 영화법 12조 1항인 '영화는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제2항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낸 것이 받아들여 "영화법 사전 심의 조항에 위헌의 의문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내놓았던 상태였다. 이것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연 윤리 위원회의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륜의 심의 제도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제도로 언론·출판의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권으로 계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륜을 검열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로 91년 5월 '오! 꿈의 나라'의 연출자인 홍기선 감독이 냈던 헌법 소원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부터 사전심의 폐지를 외치던 영화계는 상당히 고무된 상태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측

1. 영화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
2. 검열 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3.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거부할 때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1. 예술의 자유는 [illegible]의되는가?
2. 공륜의 심의는 [illegible]면 기준을 갖고 있는가?
3. 공륜은 정당성 갖고 있는가?

과제

우선 이번 사전심의 폐지를 주장했던 관계자들은 이것의 폐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완전 등급제가 실시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결코 심의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력을 가진 공륜에 의한 심의가 아닌 재정적·정치적 자율이 담긴 민간단체에 의한 등급 심사를 기초로 관람 연령과 상영 극장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제작자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영화가 삭제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자칫 이번 헌법 소원의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제작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위 '포르노 극장' 등의 성인 전용 극장이 마련된 후 철저하게 등급을 지키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하는 것이다. 독립 영화 협의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선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며 "극장 상영을 위해 통과해야 되는 공연법 또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공륜의 심의필 도장이 있어야만 극장 상영이 가능하다. 사실 지난 3·4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표된 특별보고서에서도 공문 관련부분이 3개 항목에 걸쳐 보고됐다.

바로 여기서도 공륜의 심의필증 없이 작품발표가 이에 불가능한 공연법을 문제 삼은 만큼 공연법내에 참작 자유를 억압받아 온 것이다.

또한 완전한 영화의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 음반물에 관한 사전 심의가 폐지되었을 때 곧 사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법 개정과 동시에 이와 같은 형식의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번 판결의 분수령이된 '오! 꿈의 나라' '닫힌 교문을 열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피해 영화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소위 '이적성'(?)있는 영화가 되어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아 왔던 것을 비춰 볼 때 이점에 대해 영화계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측

1. 언론·출판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3. 검열은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륜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윤리 기관이다.

사진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한 강헌 씨의 작품인 '닫힌 교문을 열고'이다. 강헌 씨는 이 작품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만 6년 정도의 기간 계류 중이었던 것과 같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결과를 얻어낸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에서 스스로 위법 심사를 나선 것도 아니다. 강헌, 홍기선, 이효인, 이용배, 김명곤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법적 싸움과 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으로 얻어낸 당연한 결과이다.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민간 자율화를 이끌 의식 수준 고양과 이번을 계기로 공연법 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끌어 감독의 의사없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위질로부터 영화를 완전히 구하려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

공 연이야기 - 꽃다지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들

꽃다지가 일본에 진출했다!

지난 봄 일본의 전국노동자협의회 초청으로 노동절 행사에서 공연했던 것을 본 일본노동자들이 꽃다지의 재공연을 열렬히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오는 19일(토)부터 11월 3일(일)까지 두번째 일본 초청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사회변혁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가 지난 9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서울두레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2년만에 갖는 신곡발표회로서 공연을 통해 불렀던 모든 곡들이 신곡앨범에 실기로 돼 있어 어느 공연보다 신선하고 활기찬 무대로 꾸며졌다.

"누가 뭐래도 믿고 기다려주며 마지막까지 남아 단순화음으로 어울리는 그런 사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다. 이들의 공연은 대표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가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세상을

이루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노래 전반에 걸쳐 인간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사상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김' '노래만큼 좋은 세상' '넋풀을 위하여' 등의 노래가 힘찬 드럼연주와 관객들의 열띤 호응으로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꽃다지가 창립초기 민중들에게 약속했던 결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노라는 내용의 노래 '약속은 지킨다'로 2시간동안의 공연을 마쳤다.

'바위처럼'에 맞춰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날 공연은 '가자! 노동해방'등을 화생들의 계속되는 박수로 인해 앵콜곡으로 들려줬고 노래가 흐르자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번 행사가 꽃다지만의 것이 아닌 공연에 참가한 모든 이들의 행사임을 느끼게 했다.

7번째 공연을 맞아 한층 더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던 꽃다지는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이고 민중가요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연주나 편집에 있어서도 한층 진일보한 민중음악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 힘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김태형 기자

문 화단신

용인

사진반 누리에 졸업 전시회

지난 달 30일과 이 달 2일 3일간 학생회관 전시실에서는 사진반 누리에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1기 졸업생들부터 올해 졸업한 누리에들만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학교를 졸업해도 학내 문화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누리에들 뿐 아니라, 다른 동아리 졸업생들에게도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와 관련 누리에 회장 박시진(동구·항가리2)양은 "필름은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현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7년이나 된 필름을 잘 보관하였다가 졸업한 후 사진전에 출품하는 선배들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총 33점의 작품 뿐 아니라 누리에들 선후배간의 친분 사이를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독일어과 옥토버페스트

제 16회를 맞는 옥토버페스트는 10월이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독일어과만의 축제이다.

지난 4일(금) 노천 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독어 원어 합창단 로렐라이와 독일 민속춤 학회인 탄첸 그리고 중물패 학회인 민맥 등 독일어과 학회들의 공연도 선보였다. 또한 이번 공연은 독일어과 뿐만 아니라 타 과들도 함께 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와 관련 과회장 류현수(서양·독어 3)군은 "독어과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를 만들고 타 과에 독일에 관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옥토버페스트를 준비하였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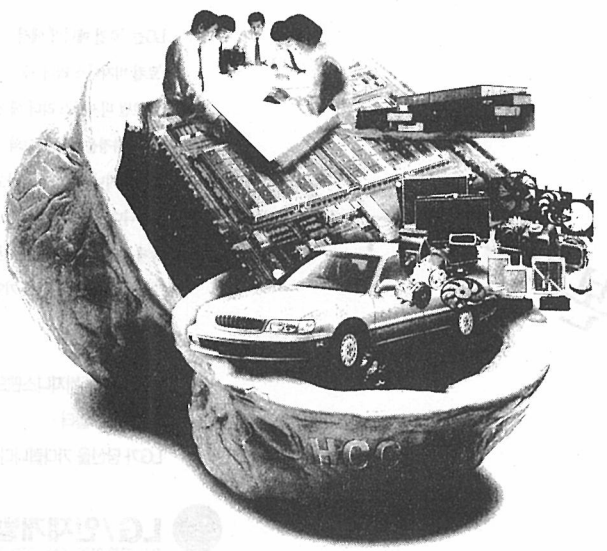
영어과 노래패 '솔찬' 7회 정기공연 가져

영어과 노래패 '솔찬'이 지난 2일(수) 대강당에서 제 7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을 위해 8월달 부터 준비했다는 솔찬은 이번 공연을 한국역사 중 민중운동 속에서 살아숨쉬는 노래를 시대별로 다시 불러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의연한 산하' '지리산 너 지리산이여' '사계' '님을 위한 행진곡' '전사' 등의 예전 노래 뿐만 아니라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등의 최근 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노래가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영상사업단' 협찬으로 4·19, 87년 민중항쟁 등의 영상이 노래와 어우러져 관객들로 하여금 한층 멋진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말연구회 한글날 기념 행사 예정

제 550돌을 맞는 한글날인 9일(수) 붉은광장에서는 우리말연구회의 여러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 외래어, 순우리말, 노래가사 속의 비어 등을 찾아내는 형식의 O·X퀴즈와 한글에 대한 기본지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자녀이름지어주기 등의 행사를 펼친다고 한다. 특히 O·X퀴즈는 붉은광장에서 12시 30분에 예선을 치르고 이를 통해 2쌍 4팀을 선발해 본선대회를 치른다. 이밖에도 '다방' '서점' '문방구' 등의 이름바꿔주기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국제경쟁력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라공조,
이제 21세기 세계 5대 공조업체로 도약합니다.

창업 10년만에 세계 10대 자동차 공조업체로 성장한 한라공조는
이제 자동차업계를 질어질 세계 5대 공조업체로 21세기를 열어가겠습니다.

1986년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한라공조는
창업 10년만에 명실공히 세계 10대 공조업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자동차용 라디에타 및 열교환기 등을 생산, 국내의 유수의 자동차 업계에
공급해 온 한라공조는 이제 그 무대를 세계속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 방안으로 89년에 캐나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96년에는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태국 및 포르투칼 현지법인을 설립,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현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눈부신 도약은 유능한 인재와 우수한 기술, 그리고
고객우선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세계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화를
이룩한 땀의 결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술과 품질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질어질 세계 5대 공조회사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HALLA 漢拏 한라중공업·만도기계·한라건설·한라시멘트·한라공조·한라자원·한라해운·한라콘크리트·한라창업투자·캄코·마이스터·한라마이티정보통신·한라제지·한라일렉트로닉스·배달학원

노동기본권 보장 통한 참교육 실현

현직교사들의 교사선언…합법화 박차

90년 정원식씨가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해직한 바 있다. 그러나 요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전교조 합법화의 문제가 정부의 OECD 가입과 관련 노개위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교사선언'을 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 '교사선언'은 지난 한 달동안 신문지상에 5차에 걸쳐 참가자명단이 공개되었고, 현재 그 수는 8833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교사선언에 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4·11총선이후 정권과 자본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노사관계개혁 분위기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이 시기를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과 이에 따른 전교조합법화를 성사시키는 일환으로 현직교사들이 교사선언을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1953년에는 보장되었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박정희정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교사라는 '성직'을 노동자로 자처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써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3%와 교사의 93.3%, 국내 노동법학자의 92.7%가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에 따른 교원노조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교사들의 '교사선언'뿐아니라 전국 각계 각층 인사 2777명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인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론의 대세임이 입증되어 정부당국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신연식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교육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개혁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주적단결권보장, 즉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계가 통일단결로 사회개혁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데에도 전교조합법화는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교조합법화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전교조는 앞으로 계속 있을 교사선언과 집회 등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선전활동을 할 것이며, 11월 노동자투쟁에도 적극 결합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포함한 올바른 노동법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정희 기자

□ 교사선언에 참여한 한만중선생님(관악중)을 만나

-교사선언을 하였을때 주위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교사선언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많은 부담을 느낄까봐 동료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료교사들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은 전혀 없다.

-아직도 '교사를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노동조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현실의 노동자상이 제대로 정립되있지 않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바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교사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이 되기 위해서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필요하며, 교육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될 경우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교원이 단체행동을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게되면 그것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전교조의 방침도 아니며, 단식수업이나 리본달고 수업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우려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 론

"국회는 죽었다"

참으로 어려운 주제다.

지금 이러한 정국에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난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국회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의의 전당이고 정치의 발원지로써 그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개원되기 한참전에도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전까지의 국회는 3김의 샅바싸움과 탐색전, 들려대로서의 전면전까지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자주해왔다. 이런 와중에 터진 한총련의 연대통일투쟁, 강릉사건은 국회를 완전히 침몰시켜버렸다. 동시에 이루어진 이명박의원의 부정선거 사실 폭로는 거의 결정적이었다. 우리사회는 분단국가이며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과 상식의 논리보다는 반공의 논리가 칠옹성처럼 뚝 버티며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각별하다.

그만큼 향후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사안은 정부와 국우 반공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직임이다.

안기부법이야말로 소위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의 상징물이 아닌가. 지금 법도 문제인데 개선하기보다는 개악한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민개혁은 과산되었으니 지금부터 전두환, 노태우 때로 돌아가 독재를 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차리리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악하려는 부분은 악법중에서도 독소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겠다는 것이다. 과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추진한 것을 다시금 번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사안은 지난번 총선이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검경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제도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합리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총선 이후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신한국당은 다시는 야당 당선자를 빼내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기국회때 선거제도, 검경중립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특히 당면해서 이병박의원의 선거부정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구속직전에 놓인 상태에서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선거에서 경찰과 검찰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특히 입법과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3권분립이 우리사회를 지탱시켜 주는 기본 원리인 이 마당에 사법이 입법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행정력으로 입법의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세번째는 지금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OECD가입을 앞둔 상태에서의 국내 노동법 개정문제이다.

참피한 일이지만 우리는 OECD에 가입하고파 하는데 다른 나라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함람미달이어서 못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개위를 만들고 노동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개선은 커녕 오히려 개악이 되고,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것을 국제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없다고.

국회가 정신차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

선진국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속해있는 단체에 가입하려면 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YS의 나라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라는 상식을 회복해내는 몫은 국회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 정 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사회단신

경기남부총련 노래패 '천리마' 또다시 구속 북한노래 가사바꿔 편곡 국가보안법 적용

경찰에 따르면 지난1일(월) 연세대통일투쟁 당시 북한중앙방송을 침취해 편곡한 '청년의 양심이 조국을 지킨다' '통일 조국 새아침' 등의 노래를 부른 경기남부총련 노래패 '천리마' 단장 강상구씨(26.아주대 4)와 연출팀장 한선희씨(24.중앙대 4)등 10여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를 고무, 찬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국가존립을 위협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었다.

이와 관련해 천리마의 한 관계자는 "북한 노래를 가사만 바꿔불렀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이번 연대 사태 이후 공안정국에 희생된 것이다"며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진관 스님 간첩혐의로 구속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와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관스님이 지난 1일(월) 금재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같은 날 오후엔 서울에 위치한 불교 인권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 수감중이며 국가 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 스님은 북한 사람을 만난 사실외에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관스님을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는 '진관 스님이 구속된 강병연씨(캐나다 동포)를 통해 북한 사람에게서 미화 4천달러를 받았다는 안기부쪽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해 "진관 스님의 만남과 활동은 숨김 것도 없는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민간 통일 운동의 실체를 인정하고 당장 석방하라고 밝혔다"

무장간첩사건 기사 관련 상지대학보 위기

상지대 학보사 기자2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와 이적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기사 작성자는 구속, 편집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학보는 무기한 정간됐고, 주간교수와 편집장이 해임되고 아울러 주간교수와 관련기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물의를 빚은 기사는 지난달 23일(월)자 신문4면 독자투고란에 "그들이 무장 간첩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자가 직접 쓴글이 아니라 PC통신에 쓴글을 갈무리 받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지대 학보사 관계자는 "대학언론 수사와 더불어 한총련 개입여부등으로 인한 표적수사로 연관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간 신문에 게재된 점으로 볼때 표적수사임이 명확하다"며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으므로 끝까지 투쟁하여 기자들을 석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총련 학자위원장 보석 출소, 4일 선고공판 예정

제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군(동아대 총학생회장) 지난 2일(화) 부산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보석을 허가한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있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태도를 봤을때 도주할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호군은 원래 이번달4일 선고공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주례구치소 앞에는 동아대 학우 50여명이 마중나와 있었으며 교도소를 나온 김군은 "더욱 열심히 싸워 공안 정국을 돌파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호군은 현재 집에 머무르고 있다.김정호군은 지난6월27일 부산 구포역에서 경찰 보안수사대에 강제 연행되었다.

쇠 대 만 평

正道경영·초우량LG
도약 2005

나의 본적은 지구市

LG는 양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어, 최고의 고객감동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보람있는 직장이 되기 위한 도약 2005의 실천 사업중 하나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② 글로벌 인재 육성 편

LG는 '로컬 매니저'에서
'로컬 비지니스 리더'와
'글로벌 비지니스 리더'에 걸친
3단계 과정을 통해 최고의
국제 비지니스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제 감각과 능력을 지닌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비지니스맨으로
클 수 있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TEL:3773-2185 FAX:3773-0588

영광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 현장을 찾아

"우리는 작지만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광원전 가동이후 62건의 사고 발생, 한전 대부분 비공개 처리

선진국에서도 기피하고 안전성도 검증받지 못한 핵발전소를 우리는 무공해 청정연료라고 선전하면서 무작정 세우려 하고있다.

"이건 결코 우리 지역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터지면 영광뿐 아니라 우리나라 나아가 지구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영광 5·6호기 추가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라"는 플래카드를 보며 한 시민이 말했다.

얼마전까지 신문과 방송에서 영광5·6호기 건설을 두고 중앙정부의 건설 강행과 영광군의 건설허가 취소를 놓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영광군이 건설허가 취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영광군의 건설허가 취소 배경에는 골프장 건설 승인, 영광군에 대한 특별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왜, 잘 산다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그 수를 늘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에서 슈퍼를 경영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의 푸념섞인 말이다. 우리나라는 경남 양산의 고리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진, 월성, 영광등지의 11기 핵발전소가 가동중에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핵발전소를 18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진국에서도 기피하고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핵발전소를 무공해 청정연료라고 선전 하면서 무작정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영광군의 핵 발전소는 1986,87년 1.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3.4호기 까지 4기의 원전이 방사능을 내뿜으며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결과로 인해 영광군에서는 무뇌아와 대두아등의 기형아와 기형어, 기형가축들이 줄이어 생겨남으로써 방사능 오염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이후 2년도 못되어 송아지를 무려 12마리나 잃어버렸다는 주진영씨(45)는"젖소를 이십여 마리 이상 키우다 보니 1년에 한 두마리 죽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죽는 경우는 없었지요. 그런데 가축도 이 모양인데 사람몸은 오죽 할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제 우리도 소꼴 날지 모르잖아요"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한번 터지면 체르노빌과 맞먹는 피해가 일어 날 수 있는 원자력 사고 부분이다.

영광원전은 상업운전 개시후 6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영광원전건설관련현황보고'라는 영광군 자료에 나와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는 이 사고들을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먼저 설립된 원전도 안정성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없는 가운데 원전 5,6호기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군내에서도 원전이 들어서있고 들어설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원전이 바로 보이는 성산리에서 만난 주종은씨는"원전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 수 있는거 아니냐?"며"원전이 만약 없어 진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며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성산리 주민들이 주종은씨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선씨는"원전이 들어선 마을 사람들은 생업에 지장이 오기때문에 그럴수 있다.하지만 이마을 사람들은 원전의 혜택보다는 피해를 더많이 받고 있다고 볼수 있다.언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영광군에서는 작지만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불안전한 골리앗과 같은 과학으로부터 다윗같은 인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박병수 기자

□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씨를 만나

'영광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

-정부가 핵 발전소의 위험을 알면서도 왜 추진 하려고 하는가?

=핵발전소는 군산복합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 건설회사들이 지국에 더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로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불때 그들을 어떤식으로도 유지하는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전 계약과정중에 생겨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뇌물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핵 발전소 이외의 대안이 있는가.

=천연가스를 이용하면 된다. 천연가스는 지구의 심층부에서 무한히 만들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해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비가 줄어 들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외로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는

=물론 시큰등한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만 안 할뿐이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압묵적으로 우리를 동조하고 있다. 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의 일정은

=계속적으로 투쟁의 수위와 범위를 넓혀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전문제는 단순히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전이 이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 언론을 진단한다 4

언론, 권력과 자본의 영원한 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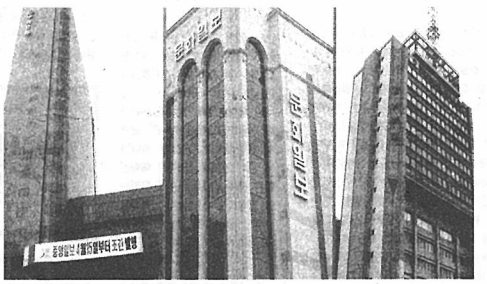
글 싣는 순서

1.한총련에 대한 왜곡 보도
2.보도지침의 관행에 대해
3.국제적 망신인 북한 '오보'
4.언론과 재벌·권력과의 관계
5.우리 언론이 나아갈 길

지난달 30일 KBS 노조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폭로했다.

9월 18일 KBS '추적 60분' 담당 CP가 안기부에서 만들어진 .59분자리 자료테잎과 함께 고정간첩 깐수와 한총련의 실체를 9월 22일 방송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제작진에게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제작진들은 추적 60분의 편당 제작기간이 보통 3~4주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료테잎 한 개를 가지고 4일만에 추적물 한편을 제작하라는 지시는 제작관행을 무시한 발상이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객관적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제작진이 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자체제작을 통해 좌경세력의 실상을 파헤치는 내용을 10월 6일 방송하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다시내려왔다고 한다. 한총련 시위와 무장간첩 사건으로 급격히 경색된 사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이 사건을 두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가능했던 언론에 대한 권력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간섭이 문민정부 아래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정치권력의 간섭이라는 문제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곡·편파보도를 비롯한 제도언론들의 문제가 단지 권력의 탄압과 간섭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통제하려는 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언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언론의 역사는 정치권력의 '언론통제'에 대한 '언론자유'의 쟁취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국가권력의 압력과 통제가 언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언론자유'라는 개념을 '국가권력으로 부터' 언론이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활동이 '언론상품'의 생산을 통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언론산업으로 변모해 광고를 통한 자본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대자본으로 성장한 현실에서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더 이상 '통제와 저항'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권력과 언론의 갈등은 기본적인 '보도의 자유'를 보장 받으려는 언론노동자와 이를 통제하려는 권력사이에서 일어날 뿐이며, 언론자본이 권력과 대립하는 경우는 '자본의 이윤추구'가 방해받을 때에 불과하다.

지난해 6공화국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재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재벌소유 언론들이 보인 태도가 좋은 예이다. 이들은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보인 반응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문민정부의 개혁 성과로 지적되던 경제 정책들이 '재벌 중심으로 후퇴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자본과 권력의 입장 차이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누리는 공동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드러날 뿐이다.

국가는 국민 일반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념아래 배타적인 공권력 행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정당화된 물리력'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 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요구되며 의회제도를 비롯해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여러 제도가 등장 하게 된다. 그 가운데 기존 지배질서와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마련되는 데 언론은 그 대표적인 기구로 파악된다.

대자본이 소유한 한 언론이 권력과 상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전 사회적인 사고 양식으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 또한 언론을 통해 끈임없이 지배의 정당성이 강화되기를 원하므로 두 세력의 결탁은 필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이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권역의 일상적인 지배를 받지 않을에도 권력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언론자본과 권력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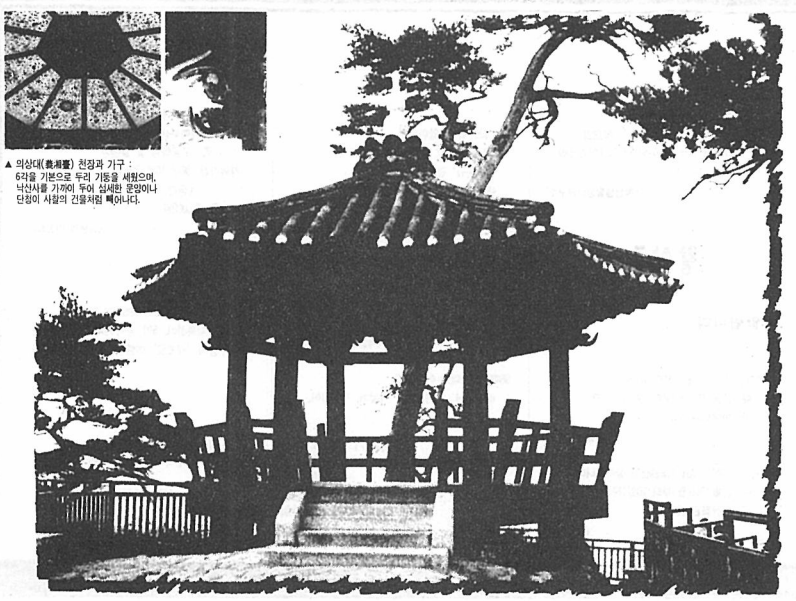
따라서 지배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과 언론자본이 공통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언론에 의해 축소.은폐되고 나아가 체제전복 기도로 매도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언론의 이같은 여론조작을 통해 권력은 노동.통일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대중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지 못한 집단이나 계층은 자신들의 이해를 주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같은 언론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에서 언론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제도언론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는 없다. 기존 언론운동의 역량을 키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언론의 대중조작을 밝혀야 하며 진보매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 유 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POSCO메시지 면학편



▲ 의상대(義湘臺) 천장과 기구 : 6각을 기본으로 두리 기둥을 세웠으며, 낙산사를 가까이 두어 심세한 문양이나 단청이 사찰의 건물처럼 뛰어나다.

'씨앗을 심고
정자(亭子)를 바라본다'

처음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름드리 낙락장송으로 자라납니다.
소나무 씨앗을 심어놓고 사람은 그 재목으로 지을
정자(亭子)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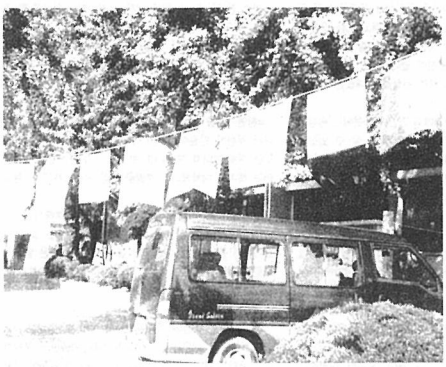
식송망정(植松望亭)—
초석을 놓을 때 이미 완성된 집을 상상하는 사람—
작은 일도 큰 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옛성인의
이야기는 열린 세계를 앞두고 가능성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의 글, 하나의 체험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대 학교육의 희망찾기④- 대종평의 문제점

"대종평, 외국교육자본 유입 부추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연계 … 무인가 대학 난립



각 대학에서 대종평을 빌미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인상하고 있는 것도 대종평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학생자치권 침해·대학간의 무제한 경쟁·대학언론 침해 등 대종평은 성과보다 폐단이 더 많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 걸린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학생탄어보장'을 내용으로 한 선전물

교육부에 따르면 94년부터 실시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대종평)'는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높이고, 아울러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각 대학의 자구 노력을 다그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각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 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평가 결과가 좋은 사립대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겉보기엔 교육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95년 3월에 전국 60개 대학에서 2,800여명의 교수가 신규 임용된 데 이어, 95년 9월에도 1,800여명이 새로 임용됐다.

이밖에도 교과 개편, 건물 신축, 기자재 구입, 교수 채용, 장학금 및 연구비 증액, 교수 연구논문 및 학술회의 증가, 교수 및 학생 국내·외 연수 증가, 조직 정비, 대학발전계획 수립, 발전기금 확충 등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앞지르는 폐단 대학발전계획 파행적 운영

그러나 지금의 대종평은 실제로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폐단이 더 많다고 보는 게 옳다. 각 대학의 특성과 대학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대학발전 계획이 '대종평 점수 잘받기'에 치우쳐 파행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더구나 각 대학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대학발전 계획은 거의 서울대 모델을 본따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종평이 대학모델의 자율화, 특성화, 다양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권 침해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회 주최의 신입생 새로배움터를 불허한 탓에 학교측과 학생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대종평 때문이다.

그 뿐아니라 심명대에서 학생간부 자격요건 강화를 운운하면서 학생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또한 세종대·서강대 등에서 대학언론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는 것도 대종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각 대학에서 대종평을 빌미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95년초 학생들에게 대종평을 핑계로 학생납입금 17% 인상을 제시했던 한양대가 바로 그러하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적지 않은 돈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는 것도 대종평 때문이다. 1994년말 결산 기준으로 이화여대 1,392억 등 전국 106개 사립대에서 쓰지 않고 95년으로 넘긴 돈이 8,214억에 달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학간의 과다경쟁만 유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이 대학끼리 지나치게 소모적인 경쟁을 하게끔 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홍익대의 한 보직교수는 "대종평이 대학간의 과당경쟁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방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국내 대학간 협동체제를 구축해 힘을 합쳐도 국내에 진출할 외국 교육자본에 맞설까 말까 하는데도 국내 대학끼리 지나치게 경쟁하게끔 하는 것은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아니라 대종평은 대학간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명문대'는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비명문대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기에 처한 비명문대 경영자들이 대학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국내에 진출한 외국 교육자본과 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종평이 대학 개방을 부추기고, 외국 교육자본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서열화가 가속화될수록 학부모들의 '일류대학병'도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대학간 격차를 해소해 학부모들의 '일류대학병'을 치유해야 마땅한 정부가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종평과 대학설립 준칙주의

또 현행 대종평은 정부의 새로운 대학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종평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권 부여와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미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많은 대학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대종평의 진짜 위험성은 정부가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종평을 연계시키려 하는 데 있다.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설립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 대종평이다.

대종평과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연계는 2000년 이후에 시행될 대종평에서 본격 도입될 전망인데, 신설 대학 뿐아니라 기존에 설립돼 있던 대학도 적용을 받게 된다. 각 대학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의 평가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고, 다음 번 평가에서는 평가인정마저 받지 못해 대학으로서의 존립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학위취득 미끼로 사기행각 심해질 듯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립대 경영자들이 진짜 대학의 문을 닫을 리 만무하다. '준칙주의'에 따른 대학설립방식이 채택되면 교육부의 승인없이도 대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인가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학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더구나 무인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전엔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 학생은 결국 사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무인가 대학에서 학생모집광고에 '외국 자매결연 대학에 유학해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사기행각이 비일비재하다. '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이러한 사기행각이 더 심해질 것임은 불보듯 환하다.

더 큰 문제는 대학본야가 개방된 뒤 무인가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해 사기행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이다. '준칙주의'가 도입되면 무인가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해 '본국 대학에 유학'을 미끼로 학생들을 모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선택할 길은 대종평과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반대하든가, 아니면 대종평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희생을 치루든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 선택은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안 호 덕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1부장)

대 외대발전의 새 지평을 위하여 ⑥-서울.용인캠퍼스 특화발전

특화발전 … 선언만 남았나

구체적 실천안 부재 · 현실외면한 청사진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계획안)에 나타나있는 서울·용인캠퍼스 발전의 개념은 '종합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균형있는 연구와 교육기능을 전문화하면서 특성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한줄로 압축돼있다.

그렇다면 외대가 종합대학으로서기 위한 청사진이 계획안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계획안 시행 4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양캠퍼스만의 특화발전 계획은 얼만큼이나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을까.

행방묘연한 구체적 실천방안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인문·사회과학의 특화발전', 양적팽창을 억제하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원칙아래 설정된 서울캠퍼스 발전개념이다. 그러나 외국어계열학과의 편재 및 조직을 재조정하고 교과과정을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편한다는 것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6,920명이라는 학생정원의 동결도 96년부터 서울캠퍼스 학생수보다 상회하도록 한다는 용인캠퍼스에 비추어볼때 뚜렷한 근거가 빠져있다. 97년도 대비 학생정원 7,280이라고 설정된 용인캠퍼스 또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대종평)라는 큰 산앞에 제자리걸음 상태다. 증과부분도 마찬가지. 용인캠퍼스 어문계열(과학학과·몽골어과·불가리아어과) 3개학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대종평이라는 압초에 의해 좌초됐다.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지역특성 연구와 자연과학의 특화발전'이라는 용인캠퍼스 발전상에서 밝힌 의과대학설립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등의 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타진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한다.

종합대학이라는 면모를 갖추고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연과학의 특화발전에 방점을 찍었지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실험실습비·교원확충 등에 대한 대안도 역시 부재하다.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돼야

특화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선행되는 것은 각 캠퍼스만의 특성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에서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 발전의 개념정립부분에는 개념정립의 배경조차 적혀있지 않다. 인문·사회과학부분 특화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의 지역특성연구와 자연과학의 집중발전을 어떻게 조화시켜 종합대학으로 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실천계획안에 '실천'이 빠져있을 때 그 계획의 존재의미는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실천계획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단계적인 실천계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실천으로 연결될리 만무한 것이다. 현재 교과과정 개혁과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외대발전 5개년실천계획, 그 시작부터 한계와 문제점은 존재했다. 새로운 외대만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곽근영 기자

무법천지

O…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21조에 의거한 '영화 사전 심의 위헌'이 결정되던 날.

한 대학언론에서는 "영화비가 싸? 아니면 신문값이 싸?" 담연히 신문값이지. 그러면 싸니까 더 많이 보겠네. 게다가 대학언론은 공짜 아니니? 근데 우리는 왜 검열받고 정간까지도 당해야 하지? 몰라. 말이 안돼! 재판장님, 우리가 먼저 아니유? 〈진〉

O…4일밤 12시경 의대 앞에서 총을 든 무장경비가 발견됐다. 크로니클 필자 학생을 잡으려는 무장경비에게로 달려가 보니…. 무장경비는 경희대 학생을 국군이 무장공비 죽이듯 때려 놓았고 말리는 학생들에게는 총기 발포까지 한다고 협박을 했다는 데. 5·6공 시절도 아닌데 감히 학교 앞에서 총기 사용이라니! 〈엄〉

O…지난 O일에 불법으로 타인 명의의 땅을 가지려 한 계다짝씨가 구속됐다. 이웃들이 싸움을 할 때를 이용, 돈을 벌어 힘이 세진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한국의 독도, 중국의 다오위타이섬을 자기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탈취하려 했다는 것.

이와 관련 그의 아들 쪽바리씨가 성명을 발표. "좋은 말로 요구할때 듣는 것이 우리 동네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럴수록 한국과 중국이 단결하여 그 집안에게 이지매를 가해야 하는 게 아닐까. 〈영〉

O…세상에 믿을 놈 없다. 술자리에서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 오호 통재라! 우리에게 신용사회란 멀고도 먼 것이었던 것이었다. 특히 운동권에겐.

얘기인 즉, 기소됐다 풀려난 천리마 단원들에게 걸려온 형사의 전화 "우리 이제 화해하고 술이나 한 잔 합세" 좋아라 달려간 단원들을 반긴 건 번뜩이는 수갑뿐, 이를 보면 삐삐밴드의 불후의 명곡,

범인 쫓는 사복경찰을 보라
우리 경찰 맘 속은
쌀럼하기도 하지. ♬ 〈정〉

'화해'의 미끼

비둘기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550돌 한글날 기념 우리말 풀이 한마당
2인 1조 신청 푸짐한 상품
때: 10월 9일(수) 12시 30분
곳: 붉은 광장
〈우리말연구회〉

· 한자특강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때: 10월 7일(월) - 9일(주)
이른 7시 40분부터 8시 50까지
곳: 사회과학관 308호

· 행정학과 모의 국무회의
기금마련 호프
때: 10월 8일(화)
곳: Yes Bash
〈행정학과학생회〉

· 검도부 OB : YB전
때: 10월 13일(일) 이른 10시
곳: 노천극장
〈검도부〉

· 해군장교 모집 안내 설명회 개최
때: 10월 18일(금) 늦은 3시
곳: 대학원 로비
상담기관: 해군본부
상담내용: 97년도 장교모집 안내

· 자기 표현 훈련 프로그램
때: 10월 10일(목) 부터 매주 목요일
늦은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연속 5회)
곳: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왕산골

□ 알립니다

· 정기 TOEIC (11월) 접수 받습니다.
때: 10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곳: 학생회관 로비
〈생활협동조합〉

· 하얀 공간에서 Art Training을 실시합니다.
때: 10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곳: 학생회관 210호
〈하얀공간〉

· FBS 방송제 그 열한번째.
"혼동을 틀고 대학을 넘어"
초대손님: 전람회
때: 10월 10일(목) 늦은 4시
곳: 자연대 강당
〈FBS〉

· 진로 및 학습향상 프로그램
때: 10월 8일(화) 늦은 3시부터
매주 화요일 늦은 3시부터 5시까지(총5회)
곳: 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96학년도 2학기 어학강좌
해당언어: 영어, 일어, 독일어, 서반아어,
중국어
대상: 외대학부생,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강의기간: 96년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중간고사기간 제외 8주)
강의료: 30,000원
〈통번역 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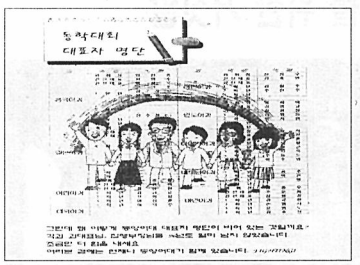
□ 축하합니다

· 광고 동아리 에드밸리의 SBS TV 퀴즈미팅 출연을 자축하며, 5기 중국어과 96 정태경군의 우승과 '세계로' 여행권 획득을 축하합니다.
〈에드밸리〉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단대학생회 정기총회 잇따라

힘찬 2학기 출범 결의의 장



2학기를 맞아 각 단대 학생회와 과 학생회는 학원자주화 투쟁의 내용을 주로한 정기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O…법과대학은 오는 8일(화) 오후 4시 소강당에서 96학년도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학기 때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던 회칙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학자 상황 총화·토론 △실천지침총화 △한국언론의 이데올로기 토론 △학술제 준비 내용 총화와 성공적 개최 결의 △회칙 개정 설명 및 투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학자 토론·총화 순서에서는 특히 민주남부와 관련된 오류점들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학자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법대발전을 위한 요구안도 공유한다.

이와 관련, 법대 사무국장 김동익(법학 3)군은 "현재 각반 단위의 토론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이번 행사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서로 얘기해 보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바램을 밝혔다.

O…동양어대는 지난 1일(화) 오후 5시 대학원건물 210호에서 2학기 동양어대 학생대표자 회의(동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학대회는 △회의운영 원칙공유, 외사세칙 통과 △1학기 및 방중 사업·결산 보고 △2학기 사업보고 △2학기 사업보고 △8·15 범민족 대회와 공안 탄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동양어대 학생회장 강병석(터키 4)군은 "우리의 꾸준한 투쟁으로 일궈 낸 성과들을 학생들의 승리로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 성과물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돌려주느냐를 고민하고 2학기 투쟁을 정리하는 장을 마련하려 했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오는 9일(수)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 법정투쟁을 준비하는 고 엄상용군의 아버지를 만나

이 사 람

"아들의 죽음, 정부의 책임 꼭 밝힐겁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어이 없이 앓고나니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라며 고 엄상용 학생의 아버지는 까만 양복에 초췌한 모습을 한 채 말문을 열었다. 고 엄상용군은 불어과를 다니다 지난 7월 군복무 중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숙소였던 막사가 매몰되는 바람에 사망했다. 어이없는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왼통하다는 엄군의 아버지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사후처사에 분노하여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투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엄군의 아버지는 "성수대교 붕괴로 죽은 사람들은 3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데 내 아들은 민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7백 6십만원을 보상금으로 주었다"며 "고생고생해서 키워논 아들을 나라가 불러가서 나라가 죽여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처리해버릴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법정투쟁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냐는 질문에 "군인과 민간인의 국가 보상에서의 차이가 있게 하는 근거가 바로 헌법 22조 2항의 국가보상법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개정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싸워야한다"며 "그 과정도 힘들지만 만약 개정된다 할 지라도 개정법은 이번 일에 소급되지않기때문에 별 성과가 없을 것같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법정투쟁과 엉망이다 된 직장생활, 몹쓰게 누운 엄군의 어머니 등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사랑과 자식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엄군의 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불만이냐는 물음에 "국가잘못으로 내 아들을 죽여놓고 내몰라라하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다"라고 대답하며 "오죽했으면 유가족들 중 한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라는 거대한 산과 힘든 싸움을 전개하려는 엄군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사회는 많은 모순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개인들의 어려운 노력 뒤에 이런 모순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희 기자

대학단신

용인

각과 모교방문의 날

청명한 가을하늘을 벗삼아 용인캠퍼스 과 학생회는 모교 방문행사가 동문들과 재학생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O…일본어과 모교 방문의 날이 지난 3일(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문관 식당에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동문회를 마련한 이날 행사에선 △1회 동문회 행사를 담은 비디오 상영 △각 기수 동문 대표 소개 △1년 학생회 사업 보고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뤄졌다.

이와 관련, 기획부장 차성택(3)군은 "이번 행사로 1학년 학생들이 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O…독일어과 모교 방문의 날이 지난 3일(수)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운동장에서 치뤄졌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던 이날 동문회에선 신구 대면식과 동문 장학금 수여식의 자리가 있었다. 이어 2부 행사는 선·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힘 다지기의 장으로 이끌어 낸 체육대회를 가졌다. 3부 행사에선 욱터버 축제를 앞두고 동문들에게 행사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O…체코어과 모교 방문의 날이 지난 3일(수) 50여명의 참여속에서 명수당에서 열렸다.

체코어과 설립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문들과 재학생이 어우러져 음식을 장만하는 등 다채로운 게임과 교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와 관련, 방민경(2)양은 "세민전 행사를 앞두고 마련했던 행사라서 간부들의 준비가 다소 소홀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후배에 대한 선배의 따뜻한 사람을 흠씬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범대, 예비 교양대학 열려

'올바른 교사됨의 조건만들기 그리하여 목적사범대를 일구기 위해'란 취지로 제 2회 가을 예비교사 교양대학이 오는 10월 13일(일)부터 한달동안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전교조와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 협의회(서사협) 주관으로 열리는 교양대학은 오전에는 전교조 선생님 강연, 오후에는 20개 과별 토론을 갖게 된다. 예비교사 교양대학을 준비한 사범대 학생회장 이원복(영교 3)군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직과정에 미비점을 우리 손으로 극복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3차교육개혁안 이후 심각해진 사범대 상황에서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속악놀이반 창립 12주년 맞아

민속악놀이반이 지난 5일(토) 오후 5시에 사회과학관 지하 민속악놀이반에서 창립제를 치렀다. 84년에 창립되 올해로 12돌을 맞는 이번 창립제는 졸업 선배들을 초청해 길놀이를 함께 하면서 서로간의 유대를 돈독히 했다. 이와 관련, 민속악놀이반 회장 김용월(정책·행정 2)군은 "창립제가 공연과 맞물려 준비에 힘들었지만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마인어과 체육대회 개최

서울·용인캠퍼스 마인어과는 지난 6일(일) 서울캠퍼스 소강담과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체육대회는 축구종목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간단한 뒷풀이도 뒤따랐다.

마인어과 동문회가 주관한 이번행사와 관련 정종두(3)군은 "동문인의 밤을 하는 다른과와는 달리 동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울과 용인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여소감을 밝혔다.

세계의 음식이 한곳에

지난 5일(토)부터 6일(일)에 걸쳐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음식전이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앞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음식이 선보인 이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만들어 미숙했지만 풍물음식이라 시민분만 아니라 외국인의 호응도 컸던 행사였다. 김학영 기자

96년 2학기 전체학과장회의 열려

강의시간표 변경 자제 요망

96년 2학기 전체학과장회의가 지난 9월 19일(목) 호텔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 상황보고가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97학년도 입학전형 일정 발표 △97학년도 입학 원서 지방 접수 계획 등을 보고 했고 용인캠퍼스 교무처는 강의시간변경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강의시간 임의변경으로 인해 급하기만도 총 232건의 중복수강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 서울캠퍼스 총무처는 △직원 채용(서울 6명, 용인 3명) △신임교수 집기 비품 지급 △학생용 사물함 설치률, 연구협력처는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 현황 △국제교류관계사항 등을 보고했다.

97학년도 신입학 전형 확정

특차 12월 11일, 정시 1월 8일

지난 9월 19일(목) 열린 전에 학·과장회의에서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97학년도 대학 신입학 전형 일정'을 발표했다.

오늘 11월 13일(수)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 특차모집은 12월 11일(수)부터 14일(토)에 있고 정시모집은 97년 1월 8일(수)부터 12일(일)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표와 같다.

구 분		특 차 모 집	정 시 모 집
전형 일정	원서교부	'96. 12. 2(월) ~ 12. 10(화)	'96. 12. 2(월) ~ 12. 20(금)
	원서접수	'96. 12. 8(일) ~ 12. 10(화)	'96. 12. 18(수) ~ 12. 20(금)
	전형일	'96. 12. 11(수) ~ 12. 10(토)	'97. 1. 8(수) ~ 1. 12(일)
	합격자발표일	'96. 12. 15(월)이전	'97. 12. 26(일) 이전
	등록기간	'97. 1. 27(월) ~ 1. 29(수)	'97. 1. 27(월) ~ 1. 29(수)
	추가합격자 발표일 및 등보기간		'97. 1. 30(목) ~ 2. 23(일)
	추가합격자 발표일 및 등보기간		'97. 2. 25(화) 까지

재학생 건강 검진

B형간염, 흉부 X선 등

서울과 용인, 양 캠퍼스는 재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B형 간염,흉부 X선등의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O…서울 캠퍼스 학생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검사 종목과 일시는 △흉부 X선 검진 및 건강검사(8·9일 오전 9시~오후 4시) △심전도 검사(9일) △B형 간염 및 유행성 독감접종(17일) 등이다. 장소는 서울 캠퍼스 보건실이며 검사결과는 오는 17일(목) 개인별로 상담·통보한다. 흉부 X선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은 모두 유료이며 B형간염 검사는 1400원 심전도 검사는 4500원 간종 건강검사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검진시에는 간염검사를 제외하고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O…용인캠퍼스 보건실에서는 오는 1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건강검사가 실시된다. 버스에서도 동시에 실시될 이번 검진은 흉부X선 검진(무료),간염검사(1400원) 그 외 건강검사등으로 이뤄진다.

검사결과는 보건실에서 상담을 통해 통보된다.

'96 동계 영어연수 신청자 모집

1. 연수 조건
- 연수 장소 : Univ. of Delaware (미국 동부 소재)
- 연수 기간 : '97. 1. 4 - 2. 16 (6주 : 5주연수 후 1주간 미국서부 및 하와이 관광)
- 수업 시간 : 주당 24 - 26시간 (주말 제외)
- 반편성 : 분반시험 성적에 따라 15명 이내로 편성

2. 연수 신청자 모집
- 모집 인원 : 선착순 30명
- 지원서 배부기간 : '96. 10. 2(수) - 10. 21(월)
- 지원서 배부처 : 단과대학 교학과 및 각 학과장실

3. 소요 경비
- 총 예상경비 : 미화 $ 4,750 -
- 경비 내역 : 수업료(주말캠프경비 포함), 기숙사 숙식비, 의료보험료, 항공료 및 관광경비, 수속관리비(여권, 비자발급 등)

4. 학점 인정
- Delaware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 대학의 '97. 1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해외연수 영어"과목으로 표기함.
- 위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으로 기재되며, '97. 1학기 수강신청 희대학점에 관계없이 추가로 3학점을 인정함.

5.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 '96. 10. 4(금) - 10. 21(월)
-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
  * 여권 및 비자신청 구비서류(별첨 참조) 각 1부.
  * 신청비 100,000원. (신청비는 추후 납부하는 총 경비에 포함됨)
- 원서 제출처 :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소재)

6. 기 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발급 업무는 연구협력처에서 일괄 처리함.
- 연수관련 문의처 : 연구협력처 학술조성주임 우세환 (전화 : 서울캠퍼스 구내 4040, 4387)

1996.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협력처

1997학년도 전기
대학원(특별전형)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 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8개학과) : 각 학과 학간별
어문학계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이태리어, 힌디어,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칸디나비아어
인문과학계 : 철학, 사학
지역학계 :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구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학계 :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공학계 : 컴퓨터공학
나. 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4개학과) : 각 학과 학간별
어문학계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 철학
지역학계 :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과학계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학계 : 수학, 물리학, 화학
공학계 : 컴퓨터공학

2. 지원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ㄱ. 대학의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
ㄴ. 특전 : TOEFL, TOEIC 및 제2외국어에 능통한 자는 10% 가산점을 부여함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첨부)
나. 박사학위과정
ㄱ. 국내,외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석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학과와 동일한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대학에서 동일계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97년 2월 취득예정자로서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3)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ㄴ. 특전 : 국내외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원서교부 : '96. 10. 9(수)부터 10.18(금)까지
4. 원서접수 : '96. 10. 14(월)부터 10. 18(금) 17:00까지
5. 전형일시 : '96. 10. 26(토) 오전 10:00
6.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 문의처 대학원 교학과 (TEL: 961-4104, 962-711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7학년도
통역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학과
가. 한국어번역·통역부(2년제) : 한영과,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서과, 한중과, 한일과, 한아과
나. 외국어번역·통역부(3년제) :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3. 시험과목
가. 1차시험 : 공통영어, 전공외국어
나. 2차시험 : 한국어, 전공외국어 번역작문, 구술시험
4. 원서교부 : '96. 10. 7(월) ~ 10. 23(수) 17:00 까지

통역대학원 입시설명회:'96.10. 7(월) 14:00 대강당

5. 접 수 : '96. 10. 16(수) ~ 10. 23(수) 17:00 까지
6. 시험일시 : '96. 11. 2(토) 10:00 부터

*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전문통역사와 다국적 국제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 기관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TEL. 961-4406, 963-0558, 961-4112~3

통 역 대 학 원

1997학년도 경영정보대학원
특별전형 (주간)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인 원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MIS 재무·회계 생산·운영관리 조직·전략	OO명 OO명 OO명 OO명
이학석사	응용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OO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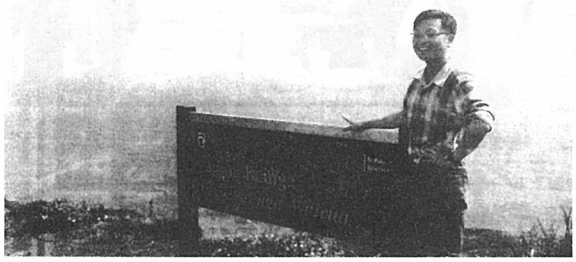
2.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7년 2월 졸업예정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대학의 전학년 평점평균이 B^0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명함판 3매 및 반명함판 1매)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입학후의 학업계획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6. 10. 14(월)부터~10. 25(금)까지
5. 구술시험일시 : '96. 11. 1(금) 10:00
6.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7. 기 타
가. 우편 접수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전형료, 수험표 발송 등기료(소액환)를 같이 우송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전화)965-7046, 961-4119

1996년 9월

경 영 정 보 대 학 원

기행문 - 카이아타이아에서 레인가 곶까지

꿈꾸었던 세상, 지도만 들고 찾아간다



아침 공기는 신선했다. 다행히 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아 오늘 일정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랜드(NORTH LAND)여행 6일째. 오늘의 정복 목표는 뉴질랜드의 북쪽끝 레인가 곶(CAPE REINGA). 보름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뉴질랜드를 처음 보았을 때의 바로 그 곳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이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6시에 기상하여 세면후 홍차와 토스트 한조각으로 키위(뉴질랜드인을 가리킴)식 아침식사를 때우고 지고 온 배낭에 카메라, 점심 토스트, 도시락, 물통, 우산, 지도만을 제외하고 모두 끄집어 내었다. 이제 막 일어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좋은 하루 되시길'하고 흥겹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넨 후 숙소문을 나서니 아침 일곱시. 지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는 방향을 확인한 후 길을 걷기 시작한다. 비장한 각오로 열치 불구하고 도로를 따라 걸으며 왼쪽 엄지를 높이 치켜든다. 물론 달콤한 미소도 잊지 말아야한다. 어라, 처음 신호받은 차가 바로 선다. 좋은 출발이다. 이 아저씨는 북쪽으로 접어드는 교차점인 앙와누이(AWANUI)까지만 날 태워 주셨다. 아저씨도 아침부터 봉잡았던 것이다.

길가 양쪽으로 신록이 만발한 초록의 목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이제부터 장도의 시작이다 차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엔 의외로 태워줄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러다간 하루종일 걸어도 도착 못한다. 드디어 깜박깜박 좌측 신호등을 켠 자동차 한대가 속도를 늦추며 내 앞에 멈춰 섰다. '혼자 여행하세요 이렇게 외진데 누가 죽이기라도 하면 어쩔려구' 건네는 아침 인사가 좀 섬뜩하다. 빼쩍 마른 마오리 청년이다. 폐차할 때가 거의 다 된 이 고물자동차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폐품한 냄새가 진동한다. 핸들을 잡은 손은 기름때가 반질거린다. 하지만 작해보인다. '가는 데까지만 부탁합니다.' 으레하는 주문이다. 이 아저씨는 이 반도의 중심을 활씬 지나 있는 조그만 마을 테카오(TE KAO)까지 간다. 거기서 친구들 만나 한잔도 하고 낚시도 가기로 했단다.

대기 색깔이 변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차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눈깔사탕만하다. 역시 우산을 가져온 게 현명했다. 거의 한시간 동안이나 날 실어다 준 이 고마운 차는 어느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 날 세워주고 떠났다. 난 탈, 뽓지 선물을 잊지 않았다. 비가 아직도 퍼붓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처마 밑에 몸을 피했다. 하늘이 내 투덜거림을 들었는지 빗방울이 가늘어 지기 시작한다. 우산을 받쳐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제는 그나마 오가던 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야에 몇 채 밖에 안 보이는 농가는 드넓은 초원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써야지. 숙소에서 얻은 종이 박스 조각에 매직으로 굵게 "레인가 곶행(CAPE REINGA)"이라고 쓴 후 우산대 안쪽에 걸쳐 놓았다. 완벽하군. 그런데 젠장 이젠 차가 오질 않는다.

언덕을 넘으니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 대양도 보인다. 하지만 지도상엔 아직도 수십킬로가 더 남았다. 다시 비가 퍼붓기 시작해 우산을 가까스로 치켜든 순간 구원자처럼 지프한대가 앞에서 섰다. 삼았다. 이 아저씨는 북섬내 팬북족 지명인 테파키(TE PAKI)까지 간다. 그곳에서 카라반 파크를 운영하신단다. 차는 다시 포장도로로 들어섰고 높은 언덕사이로 난 길을 달렸다. 주위에 더이상 높은 산이 띄지 않아 대양이 멀지 않았음을 알겠다. 짚차는 어느덧 테파키에 나를 내려 주었다. 여기서 20킬로만 더 가면 레인가 곶이라고 친절히 일러준다. 고마운 키위 아저씨께 탈 열쇠고리로 인사하고 이정표를 따라 비포장 언덕길을 올라섰다. 순 자갈길이다. 이제 더이상 마을은 찾아 볼 수 없다. 등에 땀방울이 맺혀지는 것이 느껴진다. 어느정도 올라왔을까, 갑자기 눈앞에 탁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같은 깊이 멀리 겹쳐진 산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아무도 없다. 이 넓은 대지에 오로지 이 대자연과 나만 이렇게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다. 소금기를 먹은 바람이 확 끼쳐온다. 길게 뻗은 하늘은 먹구름을 끊임없이 감고 있다. 가슴깊은 곳에서 꿈틀거림이 환호성이 되어 터지고 만다. "아…" 아아 이 위대한 자연의 원시성과 상봉하길 그 언제부터 꿈꾸었던가.

드디어 차가 한대 섰다. 관광 온 독일인 부부다. 오늘 러셀에서 오는 길이면 레인가 곶과 90마일 비치를 들른단다. 한시간 정도 달린 우리는 드디어 번덕쟁이 날씨의 근원지이며 눈부신 대양이 육지를 결국 삼켜버리는 곳, 레인가 곶에 도착했다. 야호! 서쪽의 스피릿 마노가 북오클랜드 반도의 끝이 만나는 이 곳은 단순히 북쪽 끝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비경도 함께 지니고 있다. 레인가 곶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는 곳에서 시선을 우로 돌려 산등성이 맥을 길게 타고 내려가 대양의 파도와 부딛히는 저 곳이 진짜 레인가 곶이다. 그 바위자락에 걸려 신비스런 레인가 곶은 꽃을 해마다 피우며 800년을 넘게 살아 온 포후투카와 나무(POHUTUKAWA TREE)는 죽은 마오리(MAORI)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적 고향인 하와이키(HAWAIKI)로 가기전 마지막으로 쉬었다 가는 곳이란다. 시선을 뒤로 돌리니 서남쪽에 테즈만해가 굽어 보이고 90마일 비치가 시작되는 마리아 곶이 보인다. 그 앞의 백사장은 더 이상 파랗 수 없는 물살이 차올랐다 후퇴하며 시원한 파도소리를 바람에 실어내고 있었다.

차 용 일
〈서양 · 불어 4〉

사진 수필

노천바닥에 깔린 플래카드 옆으로 학생들이 몰려나간다. 잘 보이지도 않는 밑글씨 위에 저마다 손도장을 꾹꾹 눌러 찍는다.
그리고, 곧
플래카드 위에는 잘 보이지 않던 7천의 마음이 또렷히 박혀 나타났다.
'부당한 등록금 인하하라'
'학생참여 제도적 보장하라'
학원자주의 열정이 눌러박힌 5장의 플래카드. 7천의 마음이 모이니 목표가 보였고 일궈갈 힘이 나타났다.

-지난 4일 서울 캠퍼스 노천에서 열린 집회 후 손도장을 찍은 한 여학우의 모습.

한승주 기자

영화평 - 비밀과 거짓말

화해를 위한 비밀 용서를 위한 거짓말

올해 칸느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블렌다 블레씬)을 받고 제1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품으로 선보인 '비밀과 거짓말'은 마이크리의 통산 다섯번째 극장용 장편 극영화이자 그를 다시 한번 세계의 거장중의 한 사람으로 확인시켜준 작품이다.

영국인으로서 절망적인 지국의 현실을 차가운 화면속에 그려내었던 '네이키드'와는 달리 그는 이번 작품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는 영국하류층의 가정을 찾아가 이번에는 두가지 커다란 이슈인 인종과 계급의 갈등을 생각한다.

입양된 흑인 딸 호텐스는 양부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친모를 찾는다. 그 친모, 신씨아가 자신과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백인임을 알고 놀라지만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어렵게 연락한 끝에 두 모녀는 상봉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신씨아의 백인 딸 록산느의 21번째 생일날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신씨아는 호텐스를 초대해서 가족들에게 비밀을 밝히고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만든다.

마이크리는 모녀 상봉이라는 멜로 드라마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특이한 인물의 설정을 통해서 커다란 주제를 생각하게 한다.

즉, 상류층의 흑인딸과 하류층의 백인 엄마가 만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견인 종적인 우열이 계급적 우열과 어긋날 때의 모순을 보여주며 그렇다면 과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듯하다.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 흑인 딸 호텐스를 상류층이며 이성적인 캐릭터로 설정함으로써 관객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것만이 아닌 보다 더 일반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비밀과 거짓말은 이들의 중오심을 끌러낸 원인이면서 그들 관계의 갈등을 제공한다. 신씨아는 자신이 어릴적 미혼모가 되어서 낳은 호텐스를 기억조차 못하고 백인 딸인 록산느를 걱정하느라 히스테리컬해지기까지 한다. 어릴적 피해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자신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같은 목소리로 마치 애원이라도 하듯이 록산느에게 일일이 자세한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록산느는 그런 엄마를 귀찮은 존재로 느끼고 담배를 피워대며 엄마에게 말대답을 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성에 탐닉한다. 또한 대학에 갈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쓰레기 청소부 일을 그냥하며 지낸다.

신씨아에게는 그녀가 어릴적부터 돌봐왔던 남동생인 사진사 모리스가 있다. 이제 어느정도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이지만 또다른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히스테리적인 불임의 아내는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그는 묵묵히 사진만 찍어댄다. 외유내강의 면모를 지닌 그는 지금의 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준다.

모리스의 부인인 모니카는 남편의 누이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은채 호화로운 저택을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보상심리를 채운다.

그들은 같은 한가족이면서도 서로에게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고 더더욱 비밀과 거짓말로 그들을 가두어간다. 마이크리는 그의 모든 영화가 뿌리의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다른 인종과 계급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 뿌리라는 더 커다란 진실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 신씨아와 호텐스가 만났을때는 레스토랑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된다.

마이크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깨고 진실앞에서 마주앉아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갈등의 해결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캐릭터에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관객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이해를 유도하게 한다.

자식에게 '스위트하트'를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외쳐대는 신씨아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우리를 감동케한다.

그는 예전 작품에서와 같이 집안을 주무대로 한다. 계속 인물들간의 대화가 오갈 뿐이다. 그는 영화에 멋을 부리지 않는다. 정말로 그는 영화에 멋을 부리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본다. 남들이 영화의 미학에 심취할 때 그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실을 드러내고 그의 분노와 염려와 희망을 담아 쉽게 전한다. 그의 영화가 힘이 있는 건 바로 이런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의 예전의 많은 작품들이 어서 빨리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길 바란다.

손 경 현
〈서양 · 이태리어 1, 영화모임 '올림'〉

10월의 외대달력

해	달	불	물	나무	쇠	흙
		1	2 일꾼전진대회 (이문)	3	4	5 세계풍물음식전 대학로에서 있습니다.
6	7	8 법대 정기학생총회	9 세민전 전야제	10 FBS방송제(황신) 로캘라이 노래발표제 (황신)	11	12 세민전본행사 외대만의 행사! 세민전이 시작됩니다. 이틀연달소로 오세요.
13 언론협의회 정기총회	14	15 고전기타반 '한사울' 정기연주회 (황신)	16	17	18	19
20	21	22 중	23 간	24 고	25 사	26
27	28	29 체전개막식 (황신)	30 빛모습창작영화제	31 가을놀할 (황신) 아웃사이더 정기공연		

이달의 학내역사 읽기

그해, 외대의 10월은…